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1호 HYUNBULNEWS.COM 2026년 6월 10일(음력 4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5월 31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에서 사부대중에게 '화두 일념'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리고 있다.

"태산 같은 뜻으로 화두 정진"

5월 31일, 병오년 하안거 결제
영축총림 321명 사부대중 정진
성파 대종사 "오직 화두 일념"

병오년 하안거 결제일인 5월 31일(음력 4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를 비롯한 전국 선원에서 하안거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법요식에서 법상에 오른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뜻을 세우기를 태산과 같이 꿈쩍 않게 세워야 한다"며 "해태심(게으름)을 내어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며, 옆을 돌아볼 새 없이 오직 앞만 보고 정진하여 이번 안거에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특히 화엄의 진리를 담은 선구를 인용하며 수행의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파 스님은 "한 터럭 가운데 대천세계 찰토(부처의 세계)를 다 갖다 두어도 넘치지 않고, 한 구절 안에 모든 법계를 다 포함시켜도 끝이 없다. 이러한 도리를 깨치는 것이 우리가 이번 하안거 결제 동안에 해야 할 일"이라고 설법했다.

그러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온갖 번뇌와 천사만사(千思萬事)의 잔가지를 다 쳐버리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만 정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병오년 통도사 하안거에는 총 321명의 사부대중이 방부를 들이고 정진에 들어간다. 비구 선원 80명(보광선원 27명, 극락암 호국선원 15명, 서운암 무위선원 16명, 조계암 대적선원 12명, 표충사 서래각선원 10명), 비구니 선원 57명(내원사 동국제일선원 28명, 석남사 정수선원 29명)이 동참했다.

〈하안거 결제 법어 5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6·3지방선거, 불자 당선인은?

16곳 중 추미애 · 박완수 당선
연등회 회원 이광재는 하남갑
전재수 · 김상욱, 불교인연 깊어
불교유산 발전 약속 오세훈도



추미애



박완수



이광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불자 당선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국민의힘) 2명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추 당선인은 55.04%의 득표율로 헌정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 국회정각회의 고문인 추 당선인은 선거 기간 용주사와 봉선사, 청계사 등 경기지역 사찰을 찾아 불교계와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에는 바쁜 선거 유세 일정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봉선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4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가르침을 청했다. 당시 진우 스님은 "내가 도민을 이끌어 간다기보다 도민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추 당선인은 "욕심내기보다 진정성을 중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완수 당선인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경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창원 성주사 신도로 알려진 박 당선인은 평소 〈천수경〉을 외는 등 신행 활동에 적극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창원불교연합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식에서는 "경남과 창원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불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크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불교계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됐다. 국회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 당선인은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불교계와 인연이 각별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 불자회 '화엄회' 발족에 기여하고, 초대회장을 맡았던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금천구청장에 확정됐다.

불교계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의 당선도 이어졌다. 동국대 출신인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에 각각 당선됐다. 전재수 당선인은 지역구(부산 북구갑) 활동 시절부터 사찰 법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스님·신도들과의 유대가 끈끈하다. 김상욱 당선인은 올해 4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흔들릴 때가 많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전통문화 계승·선양 공약'을 발표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접전 끝에 최종 당선됐다.

반면 불자인 하정우 전 청와대불자회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했다.

진우 스님 사전투표 "화합 계기 되길"

5월 29일 삼성동주민센터서
상진 스님 5월 30일 투표해



사진 제공=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5월 29일 사전투표를 하며 투표를 독려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서울 봉은사 인근 삼성1동 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진우 스님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투표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일을 잘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선택이 된 분들은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꼭 지켜야 하고, 낙선자들은 훌륭하게 승복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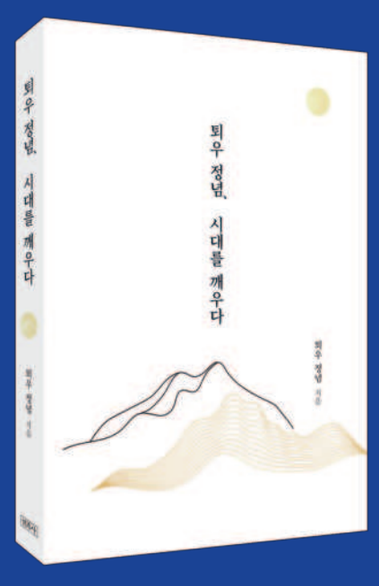
이날 사전투표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이 함께했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5월 30일 양주 장흥문화회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여수령 기자

사 령

명) 편집국 기자 박 지 운
이 현 희

2026년 6월 1일부 이상 2명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 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

조계종 임시 종회, 6월 23일로 잠정 합의

6월 2일 간담회서 결정
불교광장 소속 스님 불참
보인 스님 "책무 다해야"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38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원 일정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6월 23일 열릴 전망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6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38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원 일정을 논의했다. 당초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예정됐지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성원이 미달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해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 선우회장 보인 스님, 정법회장 탄원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선우회와 정법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집 요구가 발의되면서 추진됐다. 선우회장 보인 스님 등 종회의원 27명은 5월 29일 종회 사무처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원 스님들은 "오는 9월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과 종도 화합을 위한 중앙종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회 7일 전 공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경 스님은 이날 임시회 소집 절차와 관련해 "중앙종회법상 15일 이내 소집 규정도 중요하지만, 개회 7일 전 공고 규정은 회의 효력과 직결되는 강행규정"이라며 "종헌종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임시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회 일정을 정하고자 한다"며 "현재 결제에 들어간 스님들이 많아 수행 풍토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종회 대중의 공감을 얻는다면 성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종회사무처는 공고 규정을 적용하면 가장 빠른 개회일은 6월 16일이지만, 전날인 15일이 음력 초하루인데다 총무원 주요 일정도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개원을 제안했고, 참석자들이 동의하면서 임시회는 6월 23일 개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보인 스님 등은 은해사 산중총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법 개정과 직영사찰법 개정 등을 위해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인 스님은 "종단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은해사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나 직선직 선출을 앞둔 상황인 만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집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연석회의가 성원조차 되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앙종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인 스님은 "종회의원들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37대 집행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며 "의장 스님이 중심을 잡아 임시회가 여법하게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탄원 스님은 "처리해야 할 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기에 종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회가 열려 소통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성 스님도 "3월 종회 당시에는 종회를 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후 종단 안팎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며 "총무원 행정과 종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앙종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교광장 내부에서는 임시회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앙종회 개원 정족수는 재적의원 81명의 과반인 41명이다.

조계종, 마하사 수용재결 취소 판결 '환영'

5월 27일 대변인 묘장 스님 논평
"사찰 역사 · 문화 가치 인정 받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부산 황령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5월 27일 대변인 묘장 스님 명의의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12일 대법원과 5월 14일 부산지방법원의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해당 판결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통사찰의 부동산을 공공목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경우, 전통사찰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양도허가 절차와 종단 대표자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마하사 토지 강제수용 건은 종단 대표자인 총무원장의 승인이 없었던 만큼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조계종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통사찰보존지 강제수용이 수행·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가 보장됐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과 전통문화 전승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월 12일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900㎡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를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이어 부산지방법원은 5월 14일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대상 토지는 또 다른 사찰림 2개 토지로 3만 4637㎡ 규모다. 김내영 기자

중국서 첫 개최된 UN베삭데이 성료

5월 26~27일, 장쑤성 영산범궁서
'불교 지혜로 인류 미래 구축' 주제
월도 · 정범 스님, 주제 발표 나서



불기 2570(2026)년 제21차 UN베삭데이(United Nations Day of Vesak) 행사가 5월 26~27일 중국 장쑤성 우시 영산범궁 일원에서 '불교의 지혜를 통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촉진과 인류 공동미래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국에서 UN베삭데이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76개국에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국 측 대표단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인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진성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원상 정사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이 참석했다.

5월 26일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는 세계 각국 불교지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 화합,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원했다.

한국 측 대표로 기조발언에 나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상호연결의 세계관은 현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다"면서 "중도의 실천은 극단과 대립을 넘어 조화와 균형, 공존과 포용의 세상을 이루는 반야의 실천행"이라고 강조했다.

5월 27일에는 한국 측 대표로 종단협 부회장 대리인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녹색 생태 및 지구 보호를 위한 불교의 실천'을 주제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불교가 공동 번영에 기여한 바'를 주제로 발표했다.

영산범궁 묘음홀에서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ICDV 부회장 담마라타나 스님이 제21차 UN베삭데이 주요 논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상해시불교협회 회장인 조성 스님이 '제21차 UN 베삭데이 우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불교의 자비와 중도, 화합과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안전 참사에 태고종 애도…불교 유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에
6월 1일 대변인 애도문 발표
서소문 사고에도 위로 전해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참사에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애도를 표했다. 잇단 안전 참사에 애도 메시지를 발표한 불교 종단은 태고종이 유일하다.

태고종은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 발생한 폭발사고 직후 발표한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의 애도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다섯 분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극락왕생을 발원한다"면서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최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수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현장에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이 자리 잡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고 전했다.

이에 태고종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산업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태고종은 5월 26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다음날인 27일에도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로 애도문을 발표했다. 태고종은 "금번 서소문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두 손 모아 발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가치는 없으며,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해야 할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성파 대종사 “내가 못난이” 실수마저 품어낸 ‘하심’

5월 29일, 총무원 부실장 스님 예방
조계사 봉축법요식 해프닝 ‘참회’
성파 스님 “과오는 내게 있어” 격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5월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정변전에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봉축법요식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예상치 못한 해프닝에 대한 참회의 삼배를 올렸다. 성파 스님은 소임자 스님들을 격려하며 미소로 덕담을 건넸다. 사진 제공=조계종

“봉축 법요식에서 종정 예하께 누를 끼쳐 드려 무거운 마음으로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원 소임자들과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참회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5월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정변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예상치 못한 해프닝을 두고, 실무를 맡은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이 송구함을 전하는 자리였다.

이내 정변전의 무거운 공기는 성파 스님의 자애로운 웃음과 덕담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성파 스님은 “지나간 일에 대해 과(過)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과가 있다면 외빈들이 다수 참여하는 생방송 법요식에서 시간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나에게 있을 것”이라며 다독였다.

부·실장 스님들이 통도사를 찾은 이유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 당일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법요식에서 성파 스님은 미리 준비된 법어 대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즉석 법문을 내렸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은 같을 테니 오로지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넨 뒤, 일상에서의 수행을 강조하며 ‘살림살이’에 대한 법문을 이어가던 참이었다.

이때 생방송 중계 시간이 임박해 오자, 관계자가 종정 스님에게 귓속말로 마무리 상황을 알렸다. 스님은 “그만 하라 카나?”라며 소탈하게 웃어 대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하지만 곧이어 법어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사회자가 행사 종료를 알리는 목탁을 치며 “종정 예하께서…”라며 마무리 멘트까지 송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종단 최고 어른의 법문이 중간에 끊기는 자칫 심각한 결례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당황하거나 언짢은 기색 하나 없이 특유의 유머와 하심(下心)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아이다, 그건 아이다. 내가 마쳐야 마치지 강제로 마치는 건. 조계종 종정은 이렇게 못난이입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덮어놓고 해가지고 강제로 마치도록 됐어요. 하하하.”

스스로를 ‘못난이’라 낮추며 너털웃음을 터뜨린 스님의 대처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파안대소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날 일에 대해 성파 스님은 “그만한 일에 참회라는 말은 옳지 않다”면서 “의도치 않게 구실이 생겨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오히려 반갑다”고 미소 지었다.

이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법요식과 종정 예하의 어른스럽고 친근한 면모가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됐다”며 “불교의 유연하고 탈권위적인 이미지가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반응을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 총무국장 담산 스님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 세 종단 찾아 ‘봉축’

5월 24일 조계 · 천태 · 태고종 법회
현직 대통령 내외 첫 동반 참석
이 대통령 “자비로 채울 때 상생”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4일 조계종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천태종 서울 관문사와 태고종 양주 청련사 법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사진은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내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천태종 서울 관문사와 태고종 양주 청련사를 찾아 부처님 오심을 봉축했다.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을 모두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요식에 참석한 것도 최초다.

이 대통령은 5월 24일 오후 양주 청련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법요식에는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원로의장 호명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등 종단 주요 기관장 스님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육법공양을 통해 부처님 오심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과 상진 스님은 등을, 김 여사와 능해 스님은 차를 부처님에게 올렸다. 이어 주요 내외빈들은 관욕의식을 진행했다.

종정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3000년 전,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오신 그 원력이 크고 크며 넓고 넓어서 이 우주 밖에 가득하다”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이어 “오늘 많은 불자들이 밝힌 이 지혜의 등불 인연이 이루어지면 모든 생명들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축원했다.

상진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경제적 갈등과 대립은 인류의 삶을 고해로 만들고 있다”면서 “불만, 불편, 부정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면 내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지니 다툼이 없어질 것이니 비로소 세상은 평화의 정토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밝히는 봉축 연등은 단순한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아니다”며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합을,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전하는 마음의 등불이자 지혜의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상생과 통합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의 정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부대중은 이정훈 태고종 중앙청년회장이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계사에서 거행된 조계종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서울 관문사를 찾아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차담 및 점심 공양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관문사 대불보전에서 부처님께 헌화한 후 신도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이어 천태종 스님들과 비빔밥, 탕평채 등 사찰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비와 나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해 온 불교계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불교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서진영 BBS 사장 해임
사장 직대 수불 스님

제131차 이사회서 결의
겸직 · 체납 등의 이유로

서진영 BBS불교방송 사장이 해임됐다.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수불 스님)는 5월 28일 서울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제131차 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및 당연직 이사 해임의 건과 사장 직무대행의 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의했다. 사장 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수불 스님이 선임됐다.

이사진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흑자였던 방송국의 재정이 서 사장 취임 후 적자로 전환돼 경영 전반이 악화됐으며 겸직 문제, 세금 체납 등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BBS지부(지부장 손근선, 이하 노조) 역시 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성명서를 통해 △겸직 제한 의무 위반 △방만 경영 △사장실 자산 은닉처 활용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손근선 지부장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이사회의 결단”이라며 “노사 구분 없이 오롯이 불교방송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며 “굉장히 부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많은 결의”라고 지적하고 “즉시 법원에 해임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장으로서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악화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사에서는 60여 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불교방송은 2억3000만원의 당기 순이익 흑자가 났다”고 소명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서 사장은 “이사회 정관 14조 3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상정된 사전에 1주일 전에 고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이사회 결의를 할 수가 있다”며 “소위원회를 사장 해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사전에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

“삼보 대종사여, 큰 원력으로 다시 오소서”

5월 29일 월정사서 영결 · 다비
27일 법납 61년으로 원적 들어
10 · 27법난 고초…월남서 부상
상이연금 30억원 월정사에 기부
현해 스님 “고초에도 정진 귀감”

진부 월정사=이동격 강원지사장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원로이자 영월 법흥사 주지 대웅당 삼보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5월 29일 월정사 화엄루와 경내 일원에서 산중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다비식 모습.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원로이자 영월 법흥사 주지인 대웅당 삼보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5월 29일 월정사 화엄루와 경내 일원에서 산중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월정사 조실 현해 스님, 등명낙가사 회주 청우 스님,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도후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월정사 동당 각수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등 종단 원로와 대덕 스님, 삼보 스님의 속가 가족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식 전날인 28일 화엄루에 마련된 삼보 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의 글을 남겼다.

현해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온갖 고초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 정진하신 스님”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반락을 누리시길 서원한다”고 애도했다.

현각 스님은 행장 소개를 통해 삼보 대종사의 수행 여정과 삶의 족적을 담담히 되새겼다. 현각 스님은 수행자의 길 위에서 겪은 고난과 수행, 그리고 오대산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소개하며 스님의 삶을 회고했다.

자광 스님은 영결사에서 “종정 스님은 물론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애도한다”며 “오래 머물지 말고 잠시 쉬셨다가 속환사바 하시어 중생 제도를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문도 대표로 추도문을 낭독한 정념 스님은 “한국전쟁 이후 오대산 도량 복원의 역사는 오롯이 스님의 원력이었다”고 회고하며 “스님의 큰 원력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큰 원력으로 다시 오셔서 후학들의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발원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삼보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운 만장행렬과 함께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지나 다비장으로 운구됐다. 사부대중은 염불 속에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연화대에 안치된 법구는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거화와 함께 다비에 들어갔으며,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적멸의 길에 든 스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다.

16세에 당대 최고 학승 탄허 스님(1913~1983)을 은사로 출가한 삼보 스님은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았던 굴곡진 삶을 살았다. 1970년 베트남 전쟁에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던 삼보 스님은 작전 중 지뢰를 밟아 큰 부상을 입고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오대산 상원사 주지로 재직하던 1980년에는 신군부가 주도한 한국불교 최대 법난인 ‘10·27법난’ 당시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2005년에는 10·27법난의 진상 규명을 정부에 촉구하며 자해를 시도해 불교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삼보 스님은 은사의 영향으로 승가교육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스님은 2020년 5월 16일 탄허 대종사 37주기 다례재에서 교육불사기금 30억원을 월정사에 쾌척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지뢰를 밟아 다쳐 받은 상이연금을 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 기금은 지난해 5월 21일 월정사 승려복지시설 ‘승가림’ 개원으로 이어졌다.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영월 법흥사 주지로 주석하며 포교와 도량 수호에 힘쓴 삼보 스님은 임종게를 통해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사자의 우렁찬 포효로 사바세계를 흔들고(獅子吼聲震娑婆), 연화봉 아래 푸른 소나무는 날 저물어도 홀로 푸르구나(蓮花峰下松自靑). 평생의 의리와 갑옥(수행) 다 벗어던지고 걸림 없이 쉬노니(義甲放休無伴侶), 바랑 밖의 먼 창해가 부질없이 깊구나(網外蒼海空自深).”

혜민 스님, ‘다나 밥차’에 1000만원

6월 2일, 아름다운동행에 기탁
3년째 봉사…누적 2억원 기부



서울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혜민 스님은 6월 2일 서울 전법회관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법오 스님) 사무처에서 상임이사 법오 스님에게 ‘다나 밥차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기금은 혜민 스님의 저서 〈생각이 쉬는 사이〉 인세로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다함께나누는세상(대표 탄경 스님, 이하 다나)에 전달돼 밥차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다나는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밥차’ 나눔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200인분의 음식을 배식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서울 인근 지하도를 순회하며 도시락 80인분을 지원한다.

3년째 다나에서 밥차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혜민 스님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며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인세를 온전히 기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돼 감사하다. 꾸준히 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누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께서 기부 이외에 봉사도 3년째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처님께서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헤아렸듯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마음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혜민 스님은 2012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 등 2억원 상당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현희 기자

“불자는 채식·절제로 기후 위기 대응해야”

조계종 환경위, 6월 2일 성명
생활밀착형 실천 운동 제안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가 세계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위는 6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과 생명전환을 위한 불교행동을 제안했다. 환경위는 “기후위기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라는 착각, 끝없는 성장과 소비를 추구해 온 삶의 방식에서 비롯됐다”며 “인간의 편리와 풍요가 확대될수록 자연은 훼손되고, 그 결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간과 자연, 사회와 생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자연을 해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이며, 지구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라며 “성장과 경쟁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순환과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단순 소박한 삶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사찰과 불자를 향해 “사찰은 수행 공간인 동시에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원 순환,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며 “불자의 수행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찰과 불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실천 운동도 제안했다. ‘탄소를 비우고, 생명을 살리는 생태 재일 만들기’ 운동은 사찰에서 봉행하는 재일법회와 연계해 월 1회 또는 주 1회 작은 환경실천을 생활화하도록 구성됐다.

실천 과제로는 △초하루(음력 1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 △약사재일(음력 8일) 아프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날 △보름(음력 15일) 1시간 전등 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날 △지장재일(음력 18일) 채식을 실천하는 날 △관음재일(음력 24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 등을 제시했다. 이현희 기자

라오스 환아에 ‘자비나눔’ 응원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병원 방문
2000만원 상당 선물 전달 위로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 1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 난치병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자비나눔 선물을 전달했다.

어린이날을 맞은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한국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 나눔이 전해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6월 1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 난치병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자비나눔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륜 스님은 환아들에게 “지금 비록 몸이 아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병마와 씩씩하게 싸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용기가 빛나고 있다”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도륜 스님은 “조계종 차원에서도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단과 라오스 정부 간 MOU도 연장돼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싸야봉 원장은 “재단의 꾸준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라오스 정부와 국립아동병원, 재단 라오스 지부가 협력해 MOU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재단은 옷과 학용품, 색연필, 과자 등 간식이 담긴 2000만원 상당의 어린이날 자비나눔 선물을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선물을 받은 미싸이(14·남) 어린이는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빨리 회복해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다”며 “선물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어린이날 행사 다음 날인 6월 2일에는 도륜 스님이 직접 난치병 어린이 가정을 방문해 위로를 전했다. 스님은 비엔티안도 쏨싸마이 마을의 싸콩(10·남) 어린이와 참파마을의 씨티싹(12·남) 어린이를 찾아 “병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수호정사, 봉축법회

5월 24일, 군장병 격려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군법당 호국수호정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4일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불자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응원했다.

법요식에는 군간부 및 불자 장병을 비롯해 법회를 주관한 법운정사 주지 법운 스님(관악불교사암연합회장)과 법운정사 신도회, 동산반야회, 이웃을 돕는 사람들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홈 커밍 데이’를 통해 최인묵 예비역 주임원사, 안성민 예비역 병장 가족 등 전역한 불자 장병들도 함께하며 후배 장병들을 격려했다.

법운정사, 광림선원, 동산반야회는 특별간식 840여 세트를 마련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지운 기자



거창 붓다선원, 제4기 단기 출가학교 회향

5월 1~31일, 2명 정식 출가도
진경 스님 “바른 행복 향해”


한 달간 진행된 출가학교에서 총 13명이 전 과정을 수료한 가운데 2명은 정식 출가를 선택했다.

거창 붓다선원(선원장 진경 스님)이 5월 한 달간 운영한 단기 출가학교가 수행과 발원의 결실을 맺으며 회향했다.

붓다선원은 5월 31일 선원 내에서 ‘제4기 단기 출가학교’ 회향식을 봉행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3명(여 행자 9명, 남 행자 4명)이 참여해 전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정식 출가를 선택했다.

이번 단기 출가학교는 부처님의 정법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자들은 부처님의 생애와 10가지 공덕행 강의, 선농 수행, 스님들과의 대화 등 총 11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 또 초기경전 독경과 부처님 오신날 탁발 체험, 맨발 걷기 명상, 숨 요가, 발우공양 등 다양한 실천 수행도 이어갔다. 전체 일정 동참이 어려운 대중을 위한 일시 참가 과정도 함께 운영해 보다 많은 이들이 수행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마지막 일주일에는 이전 기수 수료생들을 위한 재참여 기회도 마련됐다. 1기 졸업생인 아버지가 4기 참가자인 딸과 함께 행자이자 도반으로 수행에 동참해 나란히 정진하며 세대를 잇는 수행 인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회향식에서 선원장 진경 스님은 한 달간 정진한 행자들을 격려하며 수행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진경 스님은 “이번 출가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원인으로 괴롭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오늘로 한 달간의 과정은 마무리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진정하고 바른 행복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행자들은 “고요한 환경 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스님들의 법문과 습의 사 스님들의 여법한 언행을 보며 절로 신심과 환희심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출가자의 삶을 체험하며 스님과 도반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을 증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원문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한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단기출가를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매 순간 선한 원인을 짓고 수행심이 물러서지 않도록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캐나다 불교도 “5월을 불교유산의 달로”

5월 29일, 오타와 국회의사당서
‘국제 베삭데이’ 기념식 개최


캐나다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열린 봉축행사에 참여한 대중들. 사진 출처=카오솟 뉴스

캐나다 오타와에서 부처님오신날인 ‘국제 베삭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봉축행사가 봉행됐다.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열린 봉축행사에 참석한 캐나다 전역 56개 불교단체와 500명이 넘는 사부대중은 “5월을 캐나다 불교 유산의 달로 공식 인정해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지난 29일 ‘카오솟 뉴스’등의 외신들은 캐나다 불교의 봉축 분위기를 전했다.

캐나다 불교문화유산의 달 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현재 캐나다에 전해진 상좌부, 대승, 금강승 불교의 대표자들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중국 출신의 이민자 불교도들과 캐나다 현지 불교도들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각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차례로 각 전통에 따라 예불을 인도하고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욕 행사를 봉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캐나다 마크 카니 수상은 봉축행사를 축하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평화, 화합의 메시지는 모든 캐나다인들과 국내 불교공동체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며 축사를 보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앞서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는 국제 베삭데이와 캐나다에서의 불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매년 5월을 불교 문화유산의 달로 공식 선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정진에 채찍 더해 각로에 접어들길

〈覺路〉

조계총림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



석달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결제라 합니다.

무엇을 결(結)한다는 말입니까?

가고 오는 것을 결하고 시비를 결하며,

생과 사의 끝없는 윤회를 결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맺음의 결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합니다.

風動心搖樹 풍동심요수요
雲生性起塵 운생성기진이라.
若明今日事 약명금일사인댄
昧却本來人 매각본래인이로다.

바람이 불었는가? 했더니 마음이 나무를 흔든 것이요.
구름이 피어오르는가? 했더니 성품 자리에 번뇌 티끌이 일어났구나.
만약 이것 이외에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한다면
본래의 주인공을 매각해 버리게 되리라.

분명한 것은 바람이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깐 방심하는 순간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선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것'
이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건 구름이 일었건 분명한 것은 마음이 요동친 것입니다.

이 선문에서는 오직 그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밝힐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주인공과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 들어가면 이러한 안계(眼界, 깨달음의 경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契得禪機 계득선기하면
溪聲便是廣長舌 계성변시광장설이요.
空諸塵境 공제진경하면
山色皆為淸淨身 산색개위청정신이로다.

선의 이치에 계합하게 되면
시냇물 소리 그대로가 부처님 설법이요.
모든 바깥 경계가 공했음을 알면
산색이 모두 청정법신이리라.

하안거 대중 모두는 정진에 채찍을 더해서

이러한 각로(覺路, 깨달음의 길)에 접어드는

결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법은 법이 아니도다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지암 대종사



心中有自心(심중유자심)
法中有至法(법중유지법)
我今可付囑(아금가부촉)
心法無心法(심법무심법)

마음 가운데 자성심이 있고,
법 가운데 지극한 법이 있도다.
내가 이제 가히 부촉하노니
마음법은 법이 아니도다.

어느덧 병오년 하안거 결제일이 되었습니다.

천지 운행도수로 보면 무더위와 열기가 가장 차승하는 올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원에서 수행하시는 수좌 스님 및 총림 운영하시는 소임자 스님 등 사부대중 모두 무사히 하안거를 성료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게송은 태고보우(太古普愚) 스님의 전법게(伝法偈)입니다.

"공관(空觀)을 투득하여 무아(無我)를 증득(證得)하고 무위법(無為法)을 성취하여 해탈(解脫), 열반(涅槃)을 이루어라"하는 부촉의 게송이라 생각합니다. 불법(佛法)과 마음의 세계를 화엄세계로 표현한 법계연기(法界緣起)와 화엄법계와도 통하는 게송이라 봅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 한철 용맹정진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엄법계를 잘 표현한 게송으로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를 마칠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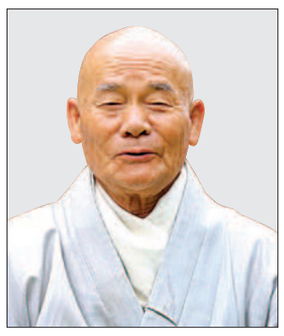
天地地天天地轉(천지지천천지전)이요
水山山水山水空(수산산수산수공)이로다
天天地地何曾轉(천천지지하증전)이리오
山山水水各宛然(산산수수각완연)이로다

나무아미타불

일심 드러날 때까지 돌이켜라

〈一心〉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天上天下無如佛 하늘 땅이 부처님
十方世界亦無比 세상이 부처님
世間所有我盡見 대자대비 사랑
一切無有如佛者 아, 부처님!

세계 최고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보고 듣는 이 물건, 이뭘까?

일심이 드러날 때까지, 마음바다가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돌이키고 돌이켜라.

백천만번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도 불러도 부를수록 지워져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미운 사람 도와야지! 대자대비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

푹~신 관세음보살 불러라.

내 얼굴이 돌아옵니다. 심정이 성스러워집니다.

대자대비 사랑으로 다 안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물건, 보고 듣는 이놈을 회복하는

여름 결제!

여름 결제는 이 문중의 청천벽력입니다.

하늘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화두

세상을 일시에 살게 하는 화두 결제, 하안거 여름 결제, 통쾌합니다.

무슨 복으로 이 결제에 주인공이 되었을까!

〈중략〉

아, 무진삼보 대자대비

목탁소리 꽉 찬 이 물건, 헤맬 일이 없습니다.

가지 끝에 나부끼는 천천 만만 나뭇잎

조도(助道)의 벗, 아~ 다 와 있었네.

때로는 걷고, 때로는 쉬고, 땅이 꺼지게 옆 사람 칭찬해 줍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도 풀도 화초들 어루만져줍니다.

한 덩어리 대적삼매, 이~뭘까?

눈 뜨면 새벽, 하늘 땅의 이 생기

날아가는 새소리 갓 없는 허공에 숨길이 터집니다.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뒤집어엎어야 합니다. 산이 물이 한 덩어리 이뭘까?

하늘도 허공도 통쾌한 화두

산하대지가 산 눈동자, 마음바다, 목숨바람,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

일상의 할 일들이 이뭘까 이 공부 경책입니다.

유아독존, 턱 밑에 숨 쉬고 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대자대비 사랑, 무진삼보 대자대비 사랑

비바람 산천초목 이뭘까 일색입니다.

걸음걸음 한 생각 발바닥으로 내리십시오.

대종소리 목탁소리 모든 소리 모든 모양 발바닥으로 내리십시오.

지심바다 한 덩어리 이뭘까?

두두가 대자대비 사랑 대성자모 관세음보살입니다.

유아독존 시아가 삼계대사 사생자부 통틀어 이뭘까?

여름 결제!

부처님의 만고 가피입니다.

한 생각으로 쉬게 하는 결제

한 생각에 퐁당 빠지게 하는 결제

화두 일색이 정상이요, 걸음걸음 통풍입니다.

부처님 눈 떴을 때 제 일성 유아독존

일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화엄경 앞이요, 산하대지 앞이로다.

일체가 내 책임!

결제는 보살행입니다. 대중 시봉입니다.

대중 시봉 큰 가슴의 결심이 여름결제 양식입니다.

사람 몸으로 도를 닦지 않으면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넘쳐 넘쳐 강물은 잔잔히 남색인데

봉우리 봉우리 생기는 봄맛이로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놈,

문득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것이

항하사 곳곳에 탑 세우는 불사보다 공덕이 크구나.

보탑은 왔다갔다, 관세음보살 한 생각 대자대비 사랑 다 안아 일시성불

아 화두 드는 결제 용맹정진입니다.

월소학작천년몽 月巢鶴作千年夢
설옥인미일색공 雪屋人迷一色空
좌단시방유점액 坐斷十方猶點額
밀이일보간비룡 蜜移一步看飛龍

밝은 달 달빛집에 백학은 천년 꿈을 꾸는가!

눈 덮인 산천 아찔하다 일색이네.

시방이 녹아져 이 뿐인데, 이마에 남은 티는 어찌할꼬.

남몰래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용을 봐라.

나는 용을 봐라~!

이~뭘까?

나무아미타불, 거룩하다 부처님이 정성을 받으소서!

5월 31일(음력 4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총림과 덕숭총림의 결제 법어를 게재합니다. 5월 27일자 1580호에 게재된 영축총림과 해인총림, 금정총림 법어는 QR코드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 바로가기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www.rooftile.co.kr
Goryeong Rooftile Co., Ltd.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9335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성공 개최' 한뜻

범어사 · 국가유산청, 협력 논의
유기적 협력망 구축 '재확인'
각국 대표단에 사찰음식 만찬
"韓 불교문화 진수 선뵐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5월 28일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아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을 차례로 예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범어사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정부와 불교계가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행사 준비기획단은 5월 28일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아 주지 정오 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순례한 뒤, 방장 정여 대종사를 예방해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전 세계에서 모이는 위원회 참가자들을 위해 범어사가 사찰음식 만찬과 전통문화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준비기획단 일행을 경내 주요 전각과 수행 공간인 금어선원 등을 직접 안내했다. 일행은 대웅전과 약사전을 비롯해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동산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부도를 참배하며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겼다.

정오 스님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찬 행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문화유산 보존에 힘쓰는 국가유산청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허 청장 일행은 방장 정여 대종사를 예방했다. 정여 스님은 허 청장에게 맑고 티 없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청무애(淸淸無礙)'라는 문구가 적힌 전통 한지 부채를 선물하며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진을 격려했다.

정여 스님은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을 수호해 온 범어사의 역사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범어사 역시 불교문화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에 허 청장은 "이번 위원회 일정 중 범어사에서 진행될 사찰음식 만찬이 각국 대표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 사찰이 간직한 고유의 고요함과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범어사 방문 일정에는 조유장 부산시 문화체육국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동참해 정부와 지자체 및 종단이 함께하는 유기적인 협력망을 재확인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한편, 범어사 비오마인드가 지역 의료기관인 대동병원 및 대동대학교와 손잡고 부산을 세계적 웰니스·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범어사는 5월 29일 범어사 경내 주지실에서 대동병원 및 대동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웰니스·의료관광 활성화와 인재 양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불교종정協, 아·태전쟁 희생자 추모식

5월 31일, 양산 불광사서
극락왕생 · 세계 평화 발원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청봉 스님·대원불교조계종 종정)는 5월 31일 양산 불광사 대웅전에서 '제28회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을 봉행했다.

추모식에는 봉행 증명 법주인 청봉 스님을 비롯해 승정원장 원명 스님, 석무오 스님, 석법진 스님, 석청진 스님을 비롯해 대원불교조계종과 청봉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희생된 한국인 영가 2만1709위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회장 청봉 스님은 추도법어에서 "오늘 봉행하는 추모식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희생된 한국인 영가 2만1709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라며 "비록 행사는 간소하게 봉행됐지만 참석 대중의 정성과 공덕이 영가들에게 회향돼 모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지켜낸 한암 스님의 일화를 소개하며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님 법과 자신의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발원하는 오늘의 추모재를 계기로 모두가 자비와 지혜의 삶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모재 이후 참석 대중은 영령들의 극락왕생과 세계 평화, 국민 화합을 발원하며 정성을 모아 천도재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식을 봉행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과 세계 평화, 국민 화합을 발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10일에는 제15대 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청봉 스님이 주재하는 첫 회의가 대전 종정협의회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도심 포교 한 세기 '혜원정사 100년사' 봉정식

5월 31일, 혜원정사 경내 특설무대
고산 스님 개산 원력 등 사료 담아
원허 스님 주석 30년 발자취 조명



부산 혜원정사가 창건 100주년과 개산 50주년을 맞아 지난 한 세기의 수행과 포교 역사를 집대성한 〈혜원정사 100년사-개산 50년, 가꾸어 온 30년〉을 발간하고 5월 31일 삼보전에 봉정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포교 도량인 혜원정사가 창건 100주년과 개산 50주년을 맞아 지난 한 세기의 수행과 포교 역사를 집대성한 〈혜원정사 100년사-개산 50년, 가꾸어 온 30년〉을 발간하고 삼보전에 봉정했다.

혜원정사(주지 인호 스님)는 5월 31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혜원정사 100년사 봉정법회'를 봉행하고 창건 100주년, 개산 50주년, 원허 스님 주석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백 년을 향한 원력을 다졌다.

이날 법회에는 회주 원허 스님과 주지 인호 스님을 비롯해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대종사,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쌍계사 승가대학장 대각 스님, 쌍계사 사암연합회장 이암 스님,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천흥사 성전 스님 등 문도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원허 스님은 발간사에서 "이 책은 단순한 기록집이 아니라 수행자와 불자들의 신심과 공덕, 그리고 혜원정사가 걸어온 수행과 전법의 정신을 담아낸 역사서"라며 "지난 백 년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자비와 지혜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도량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혜원정사와 인연을 맺어온 모든 이들이 이 책을 통해 도량의 가치와 역사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도록 제작을 맡은 오세룡 담앤북스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혜원정사 백 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날 삼보전에 봉정된 〈혜원정사 100년사-개산 50년, 가꾸어 온 30년〉은 혜원정사가 펴내고 담앤북스가 제작한 396쪽 분량의 양장본 도록으로, 혜원정사의 100년 역사를 풍부한 사진과 사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한 기록물이다.

책은 1925년 연산동 묘봉산 자락에서 김덕만 거사의 작은 발원으로 시작된 혜원정사의 태동기부터 고산당 혜원 대선사의 개산 원력, 그리고 원허 스님이 이끌어 온 현대적 도심포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불사와 법회, 신행단체 활동, 청소년 포교,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 혜원정사가 걸어온 수행과 포교, 사회실천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고산 대선사의 개산 당시 자료와 불사 사진, 친필 모연문과 상량문 등 그동안 외부에 널리 공개되지 않았던 사료를 수록해 역사적 가치를 높였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밀양 표충사, 소방공무원 심신 돌본다

5월 28일, 밀양소방서와 MOU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 제공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돌보기 위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충사는 5월 28일 경내에서 밀양소방서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 현장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누적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완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템플스테이 시설 및 사찰 체험 프로그램 제공, 체험 참여자 지원 및 운영 협조,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밀양소방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직원을 중심으로 약 33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예불과 사경, 명상, 계곡길 걷기 등 다양한 산사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표충사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보욱 밀양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들은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협약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제18회 백일장 시상

양서준 학생 등 28명 수상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5월 31일 부산 영광도서 9층에서 '제18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해동고 양서준 학생과 해동중 김연우 학생, 녹산중 김보민 학생이 수상했다. 금상인 부산광역시교육감상은 해동고 박시현 학생과 해동중 최지아 학생에게 돌아갔다.

또 은상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상은 해동고 최여름 학생과 금정중 송민중 학생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상은 녹산중 김수민 학생이 각각 수상하는 등 총 28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대웅전 벽화, 1713년 조성된 3차원 불국토"

김미경 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5월 29일 불화 연구 학술대회서
'조선 불화의 전통과 변용' 발표



사진 제공=범어사 성보박물관

올해 보물로 지정 예고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가 1713년에 조성된 3차원의 입체적 '불국토'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5월 29일 개최한 '고려·조선 불화 연구의 현재' 학술대회에서 '조선 불화의 전통과 변용 : 범어사 대웅전 벽화와 관음보살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술대회는 고려 및 조선시대 불화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은 문헌 고증과 도상 분석을 통해 범어사 대웅전 벽화의 기본 조성 시기를 1713년으로 추정했다. 나아가 이 벽화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전각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확언했다.

그 근거로는 1713년 작성된 〈범어사법당중창겸단확기문〉의 기록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벽화의 하부 채색층과 구도가 18세기 초 화풍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출입 동선과 가까운 건물 앞쪽 공간(退間, 퇴간)에 그려진 관음보살도는 편년을 증명하는 시각적 자료다. 그림 속 정병의 형태, 구슬 무늬 장식, 선재동자의 옷차림 등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유행 양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 위원은 범어사 대웅전이 3차원의 입체적인 불국토를 구현한 공간임을 역설했다. 중앙 불단의 삼세불(과거·현재·미래)이 종적(시간) 축을 형성하고, 좌우 측벽의 약사여래 및 아미타여래 벽화가 횡적(공간) 축으로 결합한다. 이 십자형 구조를 통해 전각 내부가 우주적 질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완성되었다는 설명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정신을 미래에 전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특히 김 위원이 올해 보물로 지정예고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를 다루어 주신 것은 범어사로서 더없이 기쁜 일이며, 이를 계기로 관련 연구가 한층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혜 석당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는 대학과 사찰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문화유산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와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문화유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글로벌 인지도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꽃문화제, 대상 김지호·김나윤 학생

5월 27일,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사진 제공=동련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 스님)는 5월 27일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대강당에서 '제42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족', '행복'을 주제로 열린 본 행사의 결과를 축하하고 어린이들의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현장 참여와 공모를 통해 총 514명(그리기 476명, 글짓기 38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그리기 부문에 출품한 김지호(사하초 6) 어린이와 글짓기 부문의 김나윤(두실초 1)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제외한 수상 내역도 풍성하게 채워졌다. 부산교육청상 등을 포함한 특별상 부문에서 6명, 조계종 범어사상 등을 포함한 최우수상 부문에서 8명, BTN불교TV 및 BBS 부산불교방송상 등을 포함한 우수상 부문에서 10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그리기 부문 45명, 글짓기 부문 16명의 어린이가 장려상을 받으며, 대상을 포함해 총 87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 회장 효산 스님은 "연꽃문화제에 참여해 도화지와 원고지에 각자의 맑고 순수한 동심을 담아내어 준 모든 어린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도 이룰 수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성취감과 예술적 경험이 훗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수좌들 석 달 정진…“마음 본래주인 찾자”

전국 총림 · 선원 하안거 결제법회 봉행

양행선 · 유재상 · 김선행 · 이동격 지사장

전국 총림과 선원들이 5월 31일 병오년 하안거를 맞아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 동안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5월 31일 대웅보전에서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총림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무자 스님과 소임자 스님, 수좌 스님, 신도 등이 참석했다.

법상에 오른 방장 현묵 스님은 결제 법어를 통해 “한 철, 두 철 살아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아 낙담할 수 있지만 묵묵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행의 꽃을 피우게 된다”며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리고 산봉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보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올해 송광사 하안거에는 선원 대중 15명을 비롯해 소임자와 율원·강원·염불원 대중 등 모두 118명이 방부를 들였다. 대중들은 음력 7월 15일 해제일까지 제방에 머물며 참선과 수행 정진에 전념하게 된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5월 31일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다. 결제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산내 암자와 본말사 대중 스님들이 참석했다.

방장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를수록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대자대비의 사랑이 무르익는다”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물건, 보고 듣는 이 물건을 회복하는 것이 여름 결제의 뜻”이라고 설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대중 스님들의 정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덕사는 정혜사와 향천사, 천장사, 개심사, 견성암, 보덕사, 법륜사, 법계사, 강원, 율원, 염불원, 극락암, 선수암, 환희대, 외호대중 등 총 182명의 스님이 병오년 하안거 결제에 입방해 석 달간 정진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대종사가 하안거 결제 법어를 설하고 있다.


조계종 전 종정 진제 대종사가 결제 법어 중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5월 31일 대웅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수좌 일수 스님을 비롯해 주지 무공 스님, 고불선원과 운문선원 안거 대중 등이 동참했다.

수좌 일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결제를 기점으로 삼라만상의 인연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생사 한 가지 일에 전념했으면 한다”며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뒤쫓지 말고 번뇌가 생겨도 붙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안거에는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에 23명의 납자가 방부를 들였으며, 외호대중을 포함해 모두 78명이 백양사에서 안거에 동참한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5월 31일 통일기원대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하안거 정진의 시작을 알렸다.

결제 법사로 나선 전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오로지 화두참구의 방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며 “견성과 확철대오를 위한 90일간의 참선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하안거 기간 동화사에서는 금당선원을 비롯해 양진암, 내원암, 부도암 등 각 선원의 수좌 스님들이 외출과 대외 활동을 최소화한 채 오직 수행에 전념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선원들도 이날 일제히 결제에 들었다. 봉암사를 비롯해 불국선원, 천불선원, 천축선원, 대승선원 등 30여 곳의 선원에서 입제식이 봉행되며 수좌들의 90일 정진이 시작됐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5월 31일 적광전에서 ‘불기 2570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하안거에는 월정사 만월선원 17명, 상원사 청량선원 18명, 북대 미륵암 상왕선원 7명, 동림선원 7명, 지장암 기린선원 10명 등 모두 59명의 수좌가 안거에 들었다. 외호대중을 포함한 전체 결제 대중은 비구 117명, 비구니 21명, 재가 종무원 114명 등 총 254명에 이른다.

이날 법요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제 정신을 되새기고 수행자의 본분을 다해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며 “한 철 동안 오직 수행에 전념해 불법의 등불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이번 하안거에는 오대산자연명상마을 동림선원의 온라인 정진 대중 39명도 결제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월정사는 명상치유문화의 성지로서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일상 속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교 궁극적 의미는 평화”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 성료
5월 30일, 월정사 화엄루서
정념 스님 “하나됨 발견을”

“평화가 궁극적인 종교의 의미입니다. 종교는 본래 평화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 종교의 본질적 역할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월정사가 주최하고 월정사 화엄선연구소(소장 향산 스님), 아시아종교평화학회(회장 이찬수), 대전환포럼(이창현)이 공동 주관한 ‘202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이 5월 30일 월정사 화엄루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쟁의 시대, 월정사 세계종교학자들의 대화’를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출간된 〈기도는 왜 총성이 되었나 : 전쟁하는 종교, 위태로운 평화〉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종교와 평화의 관계를 심도 있게 조명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5월 30일 화엄루에서 ‘202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문을 연 정념 스님은 기조법문에서 오대산의 자연을 평화와 조화의 상징으로 설명하며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의 가치가 오늘날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교적 평화의 의미를 설명하며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정념 스님은 “탄허 스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 도가 없고 성인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설하셨다”며 “불교적 평화란 업성과 마음의 표현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근원적 하나됨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국제사회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며 종교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정념 스님은 “패권 경쟁과 전쟁의 역사 이면에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해 왔다”며 “종교 간 평화를 논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궁극적인 종교의 의미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종교는 본래 평화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포럼을 주관한 향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전쟁으로 인해 위태로운 평화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종교는 역사적 책임을 성찰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언어를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종교든 본질적 가치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저자 포럼에서는 이찬수 가톨릭대 교수, 홍미정 단국대 교수, 이병성 연세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문유정 동국대 교수, 정상교 금강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십자군 전쟁, 근대 일본불교 등의 사례를 통해 종교와 전쟁, 평화의 관계를 고찰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민주 보살’ 김동수 열사 46주기 추모재

전남도청 앞마당서 문화제
제1회 ‘김동수상’ 시상식도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민주의 보살’ 고(故) 김동수 열사의 46주기 추모재가 열사의 최후 항쟁지에서 엄수됐다. 특히 올해는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과 함께 열사의 마지막 모습을 형상화한 추모화가 공개돼 깊은 울림을 전했다.

김동수기념사업회(상임대표 이재수)는 5월 26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 앞마당에서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 및 46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 장소는 김동수 열사가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역사적 현장으로, 참가자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열사의 넋을 기렸다.

행사에는 김동수 열사의 어머니 김병순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동수기념사업회 이재수 상임대표, 이순규 고문,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김춘성 조선대 총장, 지병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장, 양고승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진성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대불련 동문과 시민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김동수기념사업회는 5월 26일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 및 46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김동수 열사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추모화가 공개됐다.

특히 이날 공개된 추모화 ‘넋이여, 망월동에 잠든 넋이여’는 김동수 열사가 계엄군에 의해 끌려가는 마지막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참석자들에게 5·18의 참혹한 기억과 열사의 희생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했다.

작품을 그린 양은선 작가는 글을 통해 “5·18 자료를 찾아보던 중 총을 멘 군인들이 젊은 주검을 끌고 가는 사진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며 “그 인물이 김동수 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열사의 고통과 광주의 아픔을 그림으로 기억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문화제와 함께 열린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에서는 광주 충장로 동네책방 ‘소년의 서’의 임인자 대표와 이동철 광주월곡중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인자 대표는 연극인과 독립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술계 블랙리스트, 형제복지원 사건, 5·18 성폭력 사건 등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연대 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광주민중항쟁 해설과 기록 활동 등을 통해 오월 정신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동철 교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함께 세월호 추모, 민간인학살 해원굿,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기도 등을 이어오며 역사 치유와 기억의 현장을 지켜왔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매년 5월극을 제작하며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김동수기념사업회는 “두 수상자의 삶과 실천은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한 김동수 열사의 뜻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재수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46년 전 이 시간,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2년 전에 온몸으로 경험했다”며 “김동수 열사의 큰 뜻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등대가 됐다. 열사의 정신을 선양하며 5월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흥사, 무산 대종사 8주기 다례재

5월 28일 설법전서 봉행

설악산문을 중흥시킨 선지식이자 한글 선시(禪詩)의 선구자인 설악당 무산 대종사를 추모하는 ‘설악당 무산 대종사 8주기 다례재’가 5월 28일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암도 스님과 원로의원 도후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 등명낙가사 회주 청우 스님, 백담사 기본선원장 대전 스님, 전 무문관선원장 신용 스님 등이 참석했다.



지혜 스님은 다례재에서 참석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스님께서는 평생 가람수호와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하셨고, 부족하나마 그 유지를 받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말씀하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흥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충남 남방불교 사찰, ‘웨삭 법회’ 성료

5월 31일 웨삭 봉축행사

남방불교 최대 명절인 웨삭데이(Vesak Day)를 맞아 충남 지역 스리랑카·태국·베트남 사찰들이 봉축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열반을 기렸다.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 천안 붓다라마사(주지 찌라삭 스님), 천안 원오사(주지 틱 뜨엉탄 스님)는 5월 31일 웨삭 봉축행사를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계평화와 중생의 안녕을 발원했다.

마하위하라에서는 담마끼띠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공양 의식이 진행됐다.〈사진〉



붓다라마사에서는 찌라삭 스님을 중심으로 태국 불자들이 모여 웨삭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원오사에서는 틱 뜨엉탄 스님과 베트남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와 관불 의식이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안동 불자들, 108배로 자비나눔

법림사지 5층 전탑 앞서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와 조계종 포교사단 경북지역단 안동포교사팀은 5월 30일 안동 법림사지 5층 전탑 앞에서 ‘신행단체 연합 헌공법회 및 난치병 어린이 돕기 절 수행의 밤’을 개최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범종 스님(광흥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오늘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올리는 108배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픈 모든 이들을 나와 다르지 않게 여기고 존중하겠다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실천”이라며 “내년에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까지 함께 동참해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108배 정진을 하고 법림사지 5층 전탑을 돌며 난치병 어린이들의 조속한 쾌유와 가족들의 평안을 발원했다. 또 모금에 동참하며 수행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금기·성역 넘던 소녀들, 내면의 두려움 비우다

르세라핌 'BOOMPALA'
K-팝으로 반야심경 담아

1집 〈UNFORGIVEN〉이
'금기 넘겠다' 선언이라면
2집에선 스스로와 마주해

"내 안에 남긴 두려움조차
실체 없음을 알았다" 통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르세라핌 신곡 'BOOMPALA' 퍼포먼스 필름. 사진=르세라핌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You can't hold on to the clouds in the air. (허공의 구름은 붙잡을 수 없어.)"

"Everything's empty so everything's clear. (모든 것이 공(空)하니 모든 것이 명징하다.)"

불교 경전 구절이나 어느 선지식의 법문 한 자락을 영역(英譯)한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다. 이는 한국 대표 4세대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BOOMPALA(붐팔라)'의 가사다. 곡 가사가 전부 영문이라서 한국인들에게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무상(無常), 연기(緣起), 공(空) 등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들을 담아냈다. 실제 멤버 허윤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곡의 영감을 〈반야심경〉에서 받았다고 했다.

"〈반야심경〉의 핵심이 공(空)과 무(無)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굉장히 와닿았다."

'BOOMPALA'의 메시지는 르세라핌이 데뷔 이후 구축해온 서사와 맞물려 있다. 르세라핌은 정규 1집 〈UNFORGIVEN〉에서 '두려움 없이 금기와 성역을 넘겠다'는 선언을 내세웠다. 그룹명인 '르세라핌(LE SSERAFIM)' 역시 'I'M FEARLESS(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문장을 애너그램을 통해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1집에서 그들이 대립하는 주체는 외부 세계였다. 여성 아이돌을 둘러싼 시선, 여성에게 부여된 금기, 사회가 허락한 선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규범이 그들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특히 1집 수록곡 'UNFORGIVEN'과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로 이어지는 흐름은 상징적이었다.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프시케는 보지 말라는 것을 보았으며, 푸른 수염의 아내는 열지 말라는 문을 열었다. 모두 금기를 어긴 여성들이다. 르세라핌은 이 이름들을 소환함으로써 금기를 어긴 여성을 죄인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을 뒤집었다.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가 '용서 따위'를 구해야 하는 행위가 아님을 노래와 압도적 퍼포먼스를 통해 전했다. 이는 금기를 넘는 행위는 추락이 아니라 자기 해방의 출발이라는 선언이었다.

정규 2집의 'BOOMPALA'에 이르면 서사의 방향은 외부에서 내부로 치환된다. 이제 그들이 마주하는 대상은 외부의 금기가 아닌 내면 깊숙이 들어온 두려움, 불안, 집착 등이다. 외부의 시선과 규범을 향해 "나는 두렵지 않다"고 외치던 목소리는 이제 "그 두려움은 과연 실체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지점에서 〈반야심경〉의 사유가 들어온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空)'이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다. 모든 존재와 감정, 생각과 현상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이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분명 느껴지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실체로 붙잡는 순간 번뇌가 된다. 불안도, 수치심도,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조건의 산물일 뿐이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은 "르세라핌의 'BOOMPALA'는 경쟁 사회 속 지친 젊은이들에게 '너가 쫓고 있는 것들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공과 반야의 사유를 전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과 이어진 인연들이 나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바라볼 수 있음을 K팝이라는 문법 안에서 펼친다"고 설명했다.

'BOOMPALA'가 흥미로운 이유는 공의 사유를 대중음악의 언어로 바꾸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곡은 〈반야심경〉을 강의하지 않는다. 불교 교리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몸을 흔들게 하는 리듬과 주문처럼 반복되는 후렴 속에 "붙잡지 말라", "흘려보내라", "두려움은 허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심는다.

여기서 르세라핌의 서사는 한 단계 깊어진다. 두려움 없음은 단순한 용감함이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참된 무외(無畏, 두려움이 없음)는 두려움의 뿌리를 보는 데서 온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 나를 평가하는 '타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이미지'가 모두 조건 따라 생겨난 것임을 볼 때, 두려움은 절대성을 잃는다.

'붐팔라'라는 가사도 흥미롭다. 그것은 명확한 의미를 지닌 문장이라기보다, 리듬 속에서 반복되는 주문에 가깝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지혜의 완성으로 건너가는 소리라면, '붐팔라'는 오늘의 대중문화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내는 리듬형 진언처럼 기능한다.

법장 스님은 "곡의 샘플링이 '마칼레나'인데, 이것이 노래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한 것 같다. 사실 '마칼레나'는 큰 의미가 없는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며 세계인이 기억하고 흥겹게 춤출 수 있는 노래가 됐다"면서 "누구나 흥겹고 신명날 수 있는 힘을 '붐팔라'라는 가사에 투영했다. '붐팔라'는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이 전하는 진언"이라고 평가했다.

'BOOMPALA'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문법을 마주한다. 불교의 오래된 사유와 가르침이 사찰의 법당 안에 머물지 않고, 무대와 뮤직비디오, 챌린지와 팬덤의 언어 속에서도 새롭게 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르세라핌은 〈UNFORGIVEN〉에서 금기를 깨는 두려움이 없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BOOMPALA'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가 붙잡을 실체 없는 허상임을 노래한다. 금기를 넘은 소녀들은 이제 마음을 들여다본다. 바깥의 성역을 허문 이들은 안의 집착마저 비워내고 있다.

"불교 굿즈, 이젠 내가 만든다"

조계종 문화상품 공모 진행
10월 23일까지 이메일 접수
상품 부문·디자인 부문 나눠
대상 1명 600만원 상금 수여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통불교문화 콘텐츠를 현대적 문화상품으로 재해석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해 확인된 불교에 대한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실제 상품 개발과 유통으로 연결해, 전통불교문화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5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및 사찰 콘텐츠 기반 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조계종이 보유한 문화유산과 상징, 수행문화, 역사, 공간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해 전통불교문화 콘텐츠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찰 현장에서 판매 가능하고, 국제불교박람회와 지역 사찰 유통망까지 확장 가능한 실용적 문화상품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공모 주제는 조계종 또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유산과 고유 특징을 활용한 문화상품이다. 응모자는 특정 사찰의 불화, 목조건물, 석조물, 불상, 범종, 단청, 탑, 전통문양, 서체, 수행문화, 생태·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생활용품과 공예품, 굿즈, 디지털 상품 등 시제품 형태의 '상품 부문'과 제작 가능한 설계도 및 시각화 결과물을 제출하는 '디자인 부문'으로 나뉜다.

응모 자격은 개인과 학생, 기업, 디자이너, 공예가, 브랜드, 사찰 및 종단기관, 불교문화 관련 단체 등으로 폭넓게 열려 있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불교박람회 참가업체도 지역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반드시 본인이 창작했거나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결과물이어야 하며, 실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 활용한 사찰 문화자산과 상품 제작 방식, 권장 소비자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접수는 이메일(bexpo@daum.net)로만 진행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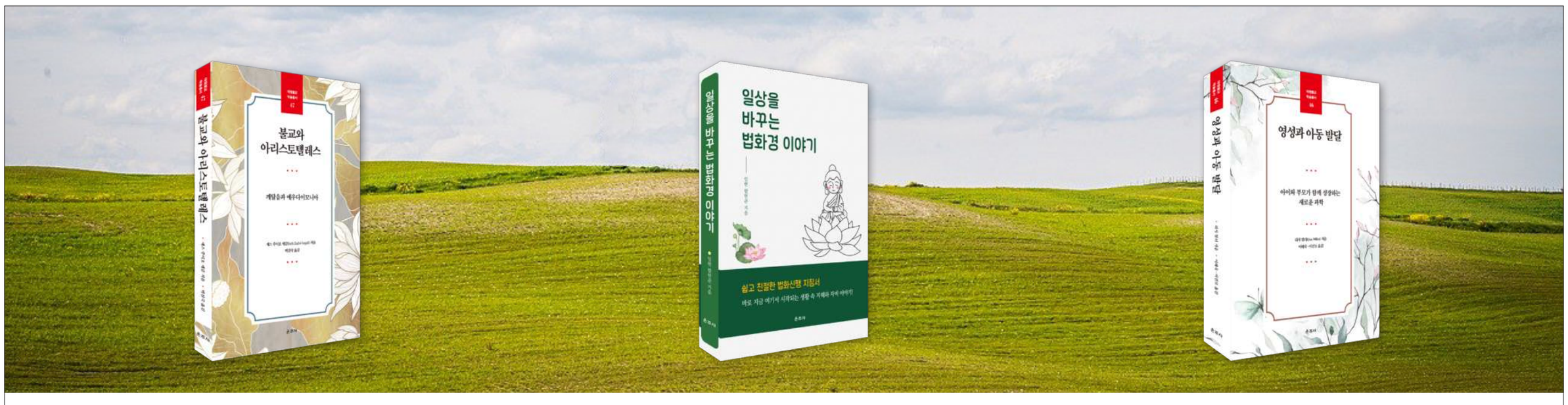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최종 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심사위원회는 불교문화와 디자인, 브랜딩, 유통·MD, 공예·상품 개발, 저작권·법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요 심사 기준은 조계종 및 사찰 연계성, 창의성, 디자인 완성도, 상품성,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이다. 특히 특정 사찰의 문화유산과의 연관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했는지,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입선 다수로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600만원, 최우수상 각 350만원, 우수상 각 15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에는 별도의 저작권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으며, 금액은 최종 계약 시 확정된다.

수상작은 2027서울국제불교박람회 내 수상작 전시존에서 소개되며, 박람회 디렉토리북을 통해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 콘텐츠가 박람회 현장에서의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사찰과 일상 속에서 향유되는 문화상품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본디나’ 첫 팝업…‘템플 위크’ 함께

6월 5~16일 더현대 서울서
문화사업단 전통문화 브랜드
전통 담아낸 불교굿즈 선봬
사찰음식, 차명상 체험 진행
명장 선재 스님 등 참여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의 자체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첫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연다. 더불어 사찰음식과 차명상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위크(TEMPLE WEEK)’도 함께 진행된다.

문화사업단은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6월 1일 밝혔다.

‘본디나’는 문화사업단이 선보이는 전통불교문화 브랜드로,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와 전통미를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는 문화’를 넘어 직접 사용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6월 5~16일 더현대 서울 6층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통불교문화 브랜드가 대중적인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전통문화와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디나’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불교문화의 가치, 그리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결합해 젊은 세대와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안할 예정이다.

‘본디나’ 제품은 연꽃, 단청, 단주, 사찰의 색감과 문양 등 한국 전통불교문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의 의미와 미학을 담아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제품 판매와 함께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인 ‘템플 위크’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템플 위크’ 행사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정신적 가치를 소개하고, 일상 속 쉼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되는 만큼,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를 보다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사찰음식과 차명상 프로그램 등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찰음식 프로그램에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사찰음식장인 법송 스님이 참여해 자연과 수행의 철학이 담긴 건강한 음식문화를 소개한다.

차명상 프로그램에는 혜원 스님과 영조 스님이 참여해 차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예약 방법은 추후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합장주·연꽃등 만들기 등 상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문화사업단 브랜드 ‘본디나’는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내외 대중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라며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템플 위크는 한국불교문화가 가진 치유와 전통의 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도심 속에서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명장 ‘한자리’…특강 열린다

무형유산 1주년 맞아
문화사업단, 7월~9월
‘사찰음식 명장 특강’
명장 스님 6인 참여해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 명장 특별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은 불교의 생명존중과 절제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찰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온 전통 식문화이다. 특히 제철 식재료와 발효문화를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수행문화이자 생활문화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일반 대중이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체험에는 선재·계호·적문·대안·정관·우관 스님 등 사찰음식 명장 스님 6인이 참여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명장 스님들의 대표 사찰음식을 직접 배우고 맛보는 것은 물론,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와 철학, 사찰 공동체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 속에 담긴 감사와 절제, 생명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사찰음식이 단순한 채식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며 마음의 균형을 돌아보는 수행문화라는 점을 체험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는 7월 3일 오후 2시 적문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7월 4일 오후 2시 계호 스님 △7월 18일 오후 2시 선재 스님 △8월 4일 오후 2시 정관 스님 △8월 11일 오후 2시 우관 스님 △9월 8일 오전 10시 대안 스님의 특강이 이어진다.

한편 ‘사찰음식 명장 특별강연’ 프로그램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 예약은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사찰음식 홈페이지(https://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㊸ 다선일미(茶禪一味)

맑은 찻잔에 밝은 달이 뜨네

茶 禪 一 味

동자승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햇살 고운 산사, 고요한 시간, 선승은 그토록 간절했던 화두마저 잠시 내려놓는다. 돌샘에서 길어 올린 물로 차를 달이면 맑고 그윽한 연초록 향기가 피어오른다. 수류화개(水流花開)의 소식이다. 물은 흐르고 꽃이 필 뿐이다.

차의 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이는 당나라 시인 노동(盧仝, 790~835)이다. 그는 ‘칠완다(七碗茶)’에서 차가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파동을 이렇게 노래했다.

“첫 잔은 목과 입술을 적시고, 둘째 잔은 고독을 깨트리네. 셋째 잔은 뱃속을 훑어 묵은 문장을 찾아내고, 넷째 잔은 땀이 나니 평생의 불평도 흩어지네. 다섯째 잔은 뼈와 살을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은 신선의 마음과 통하네. 일곱째 잔은 마시지 못하겠구나. 양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일어 봉래산이 여기로구나.”

이 ‘맑은 바람’의 경지를 선과 연결한 이는 교연(皎然, 730~799) 선사다. 그는 〈다경(茶經)〉의 저자 육우와 평생을 교유하며 시와 차를 논했던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선승이었다. 교연에게 한 잔은 세속의 먼지를 털어내는 무심의 수행이었다. 선의 고요함과 차의 맑음이 둘이 아님을 꿰뚫어 본 것이다.

한국 다도의 중흥조인 초의 선사(1786~1866) 역시 차 한 잔에서 중정(中正)의 도를 보았다. 그는 차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본연의 맛을 지녔다고 찬탄하며, 찻잔 속에 우주의 이치를 담고자 했다.

“산방에 손님 없어 고요한데/ 솔바람 소리 속에 차 달이는 연기 피어오르네/ 한 잔 차에 세상의 시끄러움 씻어내니/ 내 마음은 예와 지금이 다를 바 없구나.”

그가 추구한 것은 차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삶의 중심을 세우는 선의 경지였다.

그러나 오늘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화려한 먹방과 자극적인 음식, 밤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는 설근(舌根)이 미경(味境)을 대하는 방식을 흐트러뜨린다. 불교의 십이처(十二處) 수행에서 설근과 미경이 만나는 찰나는 단순한 감각의 순간이 아니다. 그 한순간의 접촉은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혀끝에 머무는 차의 맛 또한 단순한 미각적 자극이 아니다. 그것은 설근과 미경이 만나는 찰나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는 수행이다. 시인이 찻잔 속의 달을 마시듯, 우리는 한 잔의 차로 마음의 뜰을 가꾼다.

일본의 시인 마쓰오 바쇼(1644~1694)는 찻물이 끓는 소리를 솔바람에 비유하며 그 미세한 울림 속에 우주를 담았다.

“차 끓는 소리, 솔바람이 부는 듯한 고요한 밤.”

〈화순 불암사 주지〉

태국 불교유산, 큐레이터에게 듣는다

국립중앙박물관, 6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태국 주요 불교유산의 면면을 전문 큐레이터에게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6월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18:00~21:00)에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에는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관, 보존과학센터에서 총 12개의 해설이 진행된다.

먼저 국내 최초로 태국 문화와 미술을 소개하는 특별전인 ‘어메이징 타일랜드:태국미술명품전’의 전시 해설이 예정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 6월 24일 오후 6시에 특별전 기획자의 전시 기획 의도와 주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태국 불교유산 ‘걷는 부처’.

이와 함께 상설전시관에서도 다양한 해설이 이어진다. 6월 10일 오후 6시 3층 조각공예관의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라는 주제로 청동 종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다.

전시관 1층 선사고대관 구석기실에서 진행하는 ‘기후 변화와 인류의 역사’(6월 17일 오후 6시)에서는 초기 인류가 겪은 기후 변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해온 인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신중일 기자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진다면

『법화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지음
336쪽
18,000원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법화경



불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 제4탄!

『법화경』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뭉클하고 유쾌한
『법화경』 강의!



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원영 스님 특별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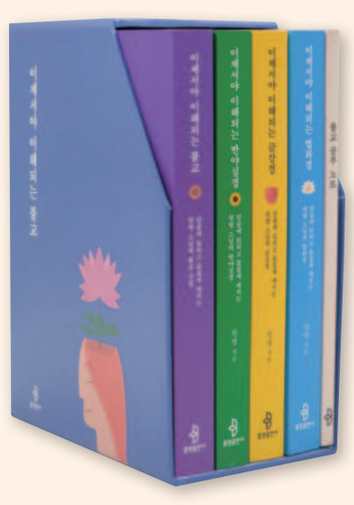
일시 2026 6.13. 토요일 3시

장소 대구 엑스코 동관 4홀 메인 무대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
원영 스님과 함께라면!

주요 교리부터 핵심 경전까지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공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전 4권)
원영 지음 | 72,000원

-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 [부록] 불교 공부 노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3~6/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다 막힐 때 한줄 해결사-관세음보살 42수 자언 필사명상	동은	조계종출판사
2	한글 원각경(함허해) 한문수록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3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4	무문관	무문혜개/김태완	침묵의향기
5	선관책진(선의 관문을 뚫다)	운서주굉	호미
6	금강반야바라밀경	혜조	운주사
7	묘법연화경-한글독송본	광우,정목	김영사
8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진경	불광출판사
9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최종걸	다우
10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스님 회고록	김영사
2	바람결처럼	대행큰스님 법문	한마음출판사
3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4	간화선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5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6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7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8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초기불교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10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강설	붓다스쿨

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호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부처님 입적 후 500여 명의 아라한들이 모여 제1차 결집을 한 인도 라즈기리의 칠엽굴. 현대불교 자료사진

방대한 원자료…성전 성립 고찰
경·율·논·역사서 치밀하게 분석
호진 스님 15년 연구 공력 응축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경전(經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흔히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이 모여 경전을 결집(結集)했다고 설명한다. 1차 결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2차 결집에서는 계율 문제가 논의되며, 3차 결집에서는 교단의 정통성이 재정비되었다는 식이다.

이러한 설명은 실제 어떤 자료와 전승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후대의 해석과 재구성은 얼마나 개입돼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초에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리되고 결집됐는지, 그리고 현재 전하는 경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는 호진 스님(전 동국대 교수)이 통설처럼 받아들여져 온 결집과 경·율·론 삼장(三藏) 성립의 과정을 면밀하게 다시 살핀 책이다. 여러 부파의 율장, 경장, 논서는 물론 역사서, 여행기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검토해 문헌마다 다르게 전하는 결집 관련 기록을 꼼꼼히 대조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의 정설처럼 이해해 온 결집 서사가 실제로는 복잡한 차이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더 나아가 2차 결집의 경우 동기와 장소, 참석자, 과정이 자료와 설명마다 일정하지 않아 '결집'이라는 이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호진 스님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자료 자체'를 중시한다. 원자료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확인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검토해 과제를 던진다. 따라서 이 책은 결집의 역사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불교 문헌 연구의 방법론 자체를 성찰하게 만든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차 결집부터 3차 결집까지의 자료를 가능한 모두 파악해 정리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결집의 여러 중심 문제들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 검토해 스님의 생각과 해석을 덧붙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관련 논문과 논저들에 기술된 내용과 스님의 연구 결과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새롭게 천착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한다.

호진 스님은 "현대 불교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전개함에 있어 불교 문헌의 성립, 특히 그 가운데서도 초기 불전의 성립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 불교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새삼 환기되거나 고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오랜 세월 이 주제에 천착해 온 스님의 각별한 애정과 절절한 마음은 후기에도 담겨 있다. 1982년부터 대학에서 경전 성립사를 가르치며 초기불교 성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스님은 1991년부터 관련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스님은 "때로는 이 작업이 무모하고 쓸모없는 일이라는 회의와 포기하고 싶은 무력감을 달랠 길이 없어 한없이 헤매는 마음이기도 했다"고 토로하며 "그러나 1600여 년간의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전 성립에 대해 할 수 있는 데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 책은 호진 스님의 15년 연구 공력이 응축된 결과물이자, 부처님의 음성이 '삼장'이라는 성전으로 전승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복원해 낸 기록이다. 평생을 교학 연구와 집필에 매진해 온 스님이 집념이 책장마다 묵직하게 배어 있다.



호진 스님은 1964년 직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철학과에서 초기불교를 전공,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에서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강의했다. 2000년 동국대 교수직에서 물러난 후로는 경주 기림사 동암에서 연구와 집필에만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 〈인도불적답사기〉, 〈성지에서 쓴 편지〉(공저)가 있고 역서로 〈인도불교사 1-2〉, 〈아쇼까왕 비문〉(공역) 등이 있다.

불교는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
운주사
2만4000원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불교 신자와 무슬림 간의 폭력 사태 당시 일부 스님과 불교단체들은 군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은 미얀마 스님들이 무슬림을 추방 집회에 참가한 모습. 사진 출처=월스트리트저널

불교와 권력의 관계 추적
전쟁·국가폭력·성차별까지
불교 내부 구조 비판적 성찰

불교를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이 자비와 평화, 비폭력의 가르침을 연상한다. 살생을 금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온 종교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와 폭력〉은 '평화로운 불교'라는 이미지 뒤편에 존재해 온 폭력의 역사와 구조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불교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불교가 역사와 사회, 정치권력 속에서 어떻게 폭력과 결합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교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이다.

책은 6개의 장과 맺음말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불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후반부는 폭력의 피해자로서 불자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다룬다.

1장에서는 살생과 전쟁, 분쟁에 대한 불교의 다양한 태도를 살핀다. 초기불교와 상좌부, 대승, 금강승 전통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생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는지, 폭력이 정당화됐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종교적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불교가 보여준 모순적 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2장에서는 국가 폭력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한다. 저자는 태국 군주제를 사례로 들며 승려들이 독재 체제와 폭력적 통치를 어떻게 지지하고 정당화했는지를 살핀다. 3장은 불교 내부의 성차별 문제를 다룬다. 태국에서 여성 수계가 오랜 기간 금지돼 온 사례를 중심으로 교리적 논쟁이 어떻게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한다.

후반부에서는 불교가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4장에서는 군종 문제를 통해 종교와 군대의 관계를 분석하고, 폭력이 종교 제도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5장에서는 태국 남부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불자와 무슬림 공동체가 트라우마와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한다. 6장은 종교적 모독이 공동체 정체성과 권위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분석하며,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성찰하게 만든다.

저자는 문헌 연구에 머물지 않고 태국 남부 분쟁 지역과 종교 갈등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살아 있는 사례들을 담아냈다. 이를 통해 종교가 추상적 교리의 차원을 넘어 실제 인간의 고통과 정치적 폭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는 "불교는 원래 평화롭다"는 식의 본질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와 지역, 권력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구성돼 온 '불교 체계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를 이상화하거나 신성화하기보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0월 29일/11월 4일/11월 11일/11월 25일
▶동참금 : 290만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아-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서역기행의 시작,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맥적산석굴-수렴동마애불-란저우-돈황(막고굴, 명사산)-투루판(베제클리크석굴, 고창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서안-인천
▶동참금 : 문의
★ 국내선 2회+고속열차 1회로 편안한 일정 ★



황금빛 불탑의 향연,
미얀마 양곤+짜익티오 4박5일
▶일 정 : 인천-양곤-짜익티오-바고-양곤-인천
▶동참금 : 문의 ★금, 일 출발가능★

미얀마 완전일주 6박7일
▶일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불교적 사유로 포착한 수행자의 시선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
우현 스님 글·사진
담앤북스
2만원

SNS에 갈무리한 글과 사진
경전·선어록 현대어로 풀이
'나' 마주하는 사유의 순간

성낙두 경남지사장

SNS를 통해 우주의 질서와 진리를 사진과 글로 전하며 대중과 소통해 온 창원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이 최근 수행 에세이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을 펴냈다.

책은 차(茶)와 향(香), 명상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온 스님의 고요한 시선의 산물이다. 수행에서 비롯된 선적 감수성과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새롭고 낯설게 포착한 시선이 문장과 사진들로 고스란히 담겼다.

책은 비가 내리고 난 자리, 밝게 비친 이면의 그림자, 낮은 곳에서 역동하는 생명들, 발아래의 작은 공간 등 사진으로 포착된 '찰나의 순간'에 담긴 '억겁의 기억'이다. 또 당시 느낀 '사유의 흔적'을 화려한 수사나 장황한 설명 없이 선문답처럼 간명한 글과 함께 135편으로 엮었다.

광우 스님은 6월 1일 정법사 비로선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책은 경전과 선어록을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자, 찰나의 경계를 오래도록 관조하며 길어 올린 생각들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컬러 사진을 비중 있게 수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교의 진리를 한층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 사진과 글을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찰칵'의 순간이 '지(止)'라면,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의미를 살피는 과정은 '관(觀)'"이라며 "사진은 불교의 지관(止觀) 수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도구로, 이 책은 사진을 찍는 순간 떠오른 순간의 사유를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광우 스님은 "화려한 현실도 수행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색들이 점차 옅어지고 결국 본질만 남는다"며 "컬러의 경계가 욕망과 분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흑백의 문장은 이를 넘어 본질을 바라보는 수행자의 시선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컬러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시선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찰나에 일어나는 일념(一念)'의 상징으로 책 표지에 붉은 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창원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6월 1일 정법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의 진리를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 사진과 글을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부디 돌아보고 살펴보고 집중하고 사유하길' 바라는 스님의 시선은 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스님은 '흑유병(黑釉甁)'에 대해 "제법(諸法)은 부동(不動)하여 본디 고요한 것, 이름을 고집하지 않음으로 각각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진다"며 존재의 본질을 성찰한다. 또 '색신(色身)과 법신(法身)'에서는 숲과 콘크리트,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바라보며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방랑(放浪)'에 대해서는 "방랑하는 자만이 우울함에 지배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광우 스님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 화두"라며 "대중에게 불교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말보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삶"이라며 "앞으로도 몸짓의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불법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정보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사유와 질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짧은 영상과 요약된 정보에 익숙해진 시대일수록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작은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말로 사유하는 불교



불교, 쉽고 깊게 읽기
이도흠 지음
민족사
1만9500원

초기 경전 바탕으로 다시 쓴 불교
불교용어, 우리말 표현으로 풀어

같은 대상을 두고도 '소젖, 타락, 우유, 밀크'라 부를 때 느낌과 개념은 저마다 다르다. 언어가 바뀌면 사유의 틀이 바뀌기 때문이다. 난해한 불교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의 깊은 지혜를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낸 불교 개론서가 나왔다.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온 국어학자 이도흠 한양대 명예교수가 펴낸 〈불교, 쉽고 깊게 읽기〉가 그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불교 용어 체계를 우리말로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우리말로 불교 사유하기'를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 한문 용어의 맥락을 비교 분석해 가장 적절한 우리말 표현으로 대치했다. 그 결과 연기(緣起)는 '말미암아 나고 사라짐', 공(空)은 '나 없이 빔', 중도(中道)는 '올바른 가운뎃길', 사성제(四聖諦)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등으로 풀어냈다.

이와 함께 책은 초기불교를 거쳐 대승·선불교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심화·확장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로 관련됨'으로 시작한 연기의 개념은 '의존하여 일어남'을 거쳐 화엄 사상의 '서로 말미암아 스며듦'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며 불교 사유 전체를 관통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 중도와 연기론을 바탕으로 공과 유, 윤회와 무아, 돈오와 점수 등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을 증명한다.

나아가 저자는 오늘날 붓다가 살아계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해방자 붓다', '자비로운 분노', '민중부처'와 같은 개념 도출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대승 경전의 과장과 신화를 걷어내고 초기 경전에 근거한 '역사' 속 인간 붓다의 삶을 39개의 에피소드로 복원한 붓다의 생애도 눈길을 끈다.

책은 이 같은 붓다의 삶을 비롯해 근본 가르침, 깨우침의 길, 수행과 열반의 길, 새로운 지평과 해석을 펼쳐 보인다.

이를 위해 저자는 2차 해설서를 배제하고 원전 경전에 집중했다. 경전 출처와 식별 번호를 명시함으로써 학문적 무게를 더했다.

배희정 기자

"K-명상 뿌리는 간화선"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인경 스님 지음 / 명상상담연구원 / 3만8000원



인경 스님은 5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간과 학술토론회 개최 소식을 알렸다.

십우도 단계 맞춰 선문답·간화선 안내
현장서 활용 가능한 실천 지침서 출간
6월 13일, 조계사서 학술토론회 개최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이 선문답과 간화선을 현대적 명상 수행 체계로 재구성한 신간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을 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경 스님은 5월 19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00공안으로 대표되는 선문답은 스승과 제자가 깨달음을 주고받는 문답 전통이며, 간화선은 이를 수행자가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교화한 수행 체계"라고 말했다.

책은 선문답과 간화선을 십우도(十牛圖)의 단계에 맞춰 풀어냈다. 이에 대해 인경 스님은 "십우도는 간화선 수행의 내적 여정을 형상화한 수행 지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특히 기존 십우도가 상징과 게송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실제 수행 현장에서 활용할 구체적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책에서는 십우도의 열 단계에 맞춰 선문답과 공안을 배열하고, 수행과 연결되는 실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최근 확산되는 명상 열풍 속에서 한국불교 고유의 수행 전통을 'K-명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스님은 "위파사나나 티베트 수행은 외래 전통이지만, 선문답과 간화선은 한국불교가 독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온 수행문화"라며 "가장 한국적인 명상 수행 체계가 바로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의 2권인 〈선문답과 간화선: K-명상과 심리상담의 통합 프로그램 지침서〉는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여기에는 십우도 단계별 선문답 해설과 연구 과제, 명상 실습 프로그램을 함께 담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12주 과정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인경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현대인의 심리 치유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몸과 마음 차원에서는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끼지만, 본래의 자성은 우울에 물들지 않는다"며 "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우울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게 되고, 결국 본래면목을 체험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몸과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 명상은 많지만, 간화선은 불성·본래면목이라는 보다 근원적 차원을 탐구한다"며 "이를 심리치료와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출간 기념 학술토론회는 6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불교학·철학·교육학·심리치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책의 의미를 분석한다. 1부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선문답과 간화선에서의 초기불교',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선문답과 간화선에서의 유식사상', 정도 스님이 '십우도 전체 구조와 선사상'을 주제로 논평한다.

2부에서는 이영순 마인드힐링센터 장이 '교육학적 의미',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중도사상',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화엄사상'을 주제로 각각 논평에 나선다. 이후 인경 스님과 참석자들의 종합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눈먼 즐거움의 실상을 바로 보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⑪ 의업의 분류와 신구 관련 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 의업의 분류

탐진치는 다 같이 의업이지만 각각 그 작용의 강도와 형태가 다르다. 즉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데 끼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파악하기 쉬운 순서대로 말하자면 진(성냄)이 가장 알기 쉽고, 그다음이 탐(탐욕)이고 치(어리석음)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다. 치는 탐과 진의 원인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과 진은 '초급 참회'에 해당되고, 치는 '중·고급 참회'에 해당된다.

그런데 탐과 진, 즉 탐진은 작용의 강도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이 신업과 구업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생각으로만 그치고 신업과 구업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를 '신구 관련 탐진(身口 關聯 貪瞋)'이라 하고, 후자를 '신구 무관 탐진(身口 無關 貪瞋)'이라고 한다.

탐욕보다 알기 쉬운 성냄을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평소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이때 미워하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향해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는 등 표가 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밖으로 표를 내지는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외형적으로 인상을 쓰고 감정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신업과 구업을 짓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미워하는 마음을, 신업이나 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신구 관련 진'이라고 한다.

반대로 마음속으로 밉기는 하지만 밖으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업이나 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신구 무관 진'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탐에도 '신구 관련 탐'이 있고, '신구 무관 탐'이 있다. 예를 들면 남의 가게에 진열된 물건을 보고 갖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악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건을 살 돈이 없는데도 계속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때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가게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치게 된다면, 이 경우는 물건을 갖고 싶은 생각이 '신구 관련 탐'이 된다. 즉 투도(도둑질)라는 신업을 일으키게 한 탐욕이라는 말이다.

이와 반대로 갖고는 싶으나 돈이 없으니 포기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는, 비록 외형적인 악업은 짓지 않았지만, 물건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신구 무관 탐'이 된다.

설명의 편의상 '신구 관련 탐'과 '신구 관련 진'을 합쳐서 '신구 관련 탐진'이라 하고, '신구 무관 탐'과 '신구 무관 진'을 합쳐서 '신구 무관 탐진'으로 분류했다. 악업의 강도는 신구 관련 탐진이 신구 무관 탐진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업 참회의 첫발인 신구 관련 탐진 참회를 설명하겠다. 신구 관련 탐부터 먼저 알아보자.

진〈탐〈치 순, 마음속 작용 파악 어려워
탐진, 행동 유발 시 악업의 강도 높아져

불교, 욕망 긍정해도 무분별 추구는 경계
파멸·고통 초래하는 그릇된 욕망이 탐

인간의 재물욕·음욕·식탐·명예욕·게으름
신·구업 일으키는 다섯 탐, 참회 대상 돼

신구 관련 탐

인간은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욕망을 갖고 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불교는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첫째, 욕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욕망은 인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며 욕망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게 된다.

둘째, 그렇다고 무조건 욕망을 긍정하면서 함부로 추구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욕망이 비록 삶의 동력이 된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이 욕망에 대한 추구는 도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돼 자신을 파멸로 이끌거나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좋지 못한 욕망을 불교에서는 탐욕 또는 탐애라고 하며, 한 글자로 '탐(貪)'이라고 표현한다.

참회 대상

예로부터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오욕락(五欲樂), 또는 오욕(五慾)이라고 해서 '재색식명수(財色食名睡)'의 다섯 가지를 든다. 이 오욕락을 기준으로 하여 신구 관련 탐의 참회 대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재물욕[재(財)]** : 이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타인의 금전이나 물건을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을 말한다. 빼앗거나 훔치거나, 복권 또는 노름으로 돈을 벌겠다는 시도를 하는 경우, 그 마음이 재물에 대한 탐이다. 이것은 주로 신업의 투도(도둑질)와 구업인 거짓말, 폭언 등을 유발하게 된다. 그 외 자신이 물질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인색한 것도 재물에 대한 탐에 해당된다.

• **음욕[색(色)]** : 정당하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해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당한 사이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애정 행위는 그 마음이 탐에 해당한다. 음욕은 사음(邪婬)의 원인이 되며, 구업 중 음담패설도 이 욕망이 원인이다.

• **식탐[식(食)]** : 이것은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서, 충분한 양의 식사를 했는데도 더 먹고 싶거나, 식사 때가 아닌데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때만 되면 먹거나 피우고 싶은 마음도 해당된다. 과식이나 편식 및 음주, 흡연 등의 원인이 된다.

• **명예욕[명(名)]** : 남들로부터 자신의 실제 상황이나 능력보다 더 나은 인정이나 대우를 받기 바라는 마음이다. 권력욕이나 인기에 대한 욕망도 해당된다. 이 마음이 있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를 터무니없이 비난하거나 권모술수를 부리는 등으로 대개 구업을 많이 짓는다. 심하면 살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게으름[수(睡)]** : '수(睡)'라는 글자는 '잠을 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망, 즉 게으름을 말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꾸 뒤로 미루는 마음이 해당된다. 방 청소나 책상 정리정돈 등 일상의 사소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단체 생활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분담해서 할 때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몸을 사리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게으름은 신업 중의 투도(도둑질)와 구업(거짓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가 신구 관련 탐에 대한 설명인데, 종합하면 결국 탐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과도해져서 잘못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나 오락, 레저, 여행 등에 대한 과도한 심취도 오욕락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의 탐이 합쳐져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로 사치와 낭비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대개 재물에 대한 탐욕, 감각적 쾌락의 추구,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자존심, 게으름 등이 합쳐진 것이다.

또 좋은 일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쳐서 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번다고 건강을 돌보지 않아 중병(重病)에 걸리게 됐다면 재물에 대한 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9월01일 출발~05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10월14일 출발~10월18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일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6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출발일 : 9월04일~9월08일(5일간)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 7대 성지순례, 아잔타석굴 13일
출발일 : 10월20일~11월01일(13일간)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아름다워 고초 겪은 '지광국사탑' 제자리로 돌아가다

성보유랑 聖寶流浪

④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1911년 日人 의해 일본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 고난
국립문화재硏 5년간 보존처리
모르타르 제거 · 결실부재 대체
112년 만에 고향인 원주 회귀
현재 법천사지 전시관서 소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24년 11월 12일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열린 지광국사탑 복원 기념식에서 복원된 승탑을 내외빈들이 둘러보고 있다. 지광국사탑은 승탑의 하중을 지탱하고 진도 7규모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면진대 위에 복원 · 설치됐다.

화려했기에 온갖 수난과 고초를 겪었던 성보유산. 바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국보·이하 지광국사탑)이다.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를 지냈던 지광 국사 해린(984~1070)의 승탑(부도)이다. 승탑의 주인인 지광 국사 해린은 원주가 고향인 고승으로 법천사에 출가해 명성을 쌓은 뒤 고려 왕실 및 문벌귀족의 후원을 받아 개성 헌화사의 주지가 돼 법상종 교단을 이끌었다.

지광국사탑은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탑을 일명 '승탑의 백미'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탑, 오욕의 역사를 겪다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일본인 모리 무라타로라는 인물이 무단 반출했고 와다 쓰네이치가 탑을 매입했다. 와다 쓰네이치는 당시 서울 명동의 자신의 개인 병원에 조경용으로 탑을 전시했다.

이후 와다 쓰네이치는 1912년 탑을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실제 탑은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나옹 화상)사리탑(1기) △개성 남계원지 7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1기) △이천 안흥사지 5층석탑 △이천향교 5층석탑과 함께 공진회 야외공간에 전시됐다.

해방 이후 6·25한국전쟁은 지광국사탑에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고 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로운 모습을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屋蓋石)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자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유산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경복궁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박물관 야외공간에 전시된 지광국사탑.



한국전쟁은 지광국사탑에 치명상을 입혔다. 당시 피폭으로 상륜부와 옥개석이 1만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박리·생물 피해·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센터는 모르타르 제거, 파손 부재 접착을 비롯해 결실된 부재들에 대해 새 돌로 제작하는 등의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결실돼 없어진 부재에 대해서는 신석재로 새로 제작했고, 파손부재들은 접착했다.

또한,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옥개석 파손부재 조각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하층 기단갑석 조각을 과학적 조사와 고증을 거쳐 원래 위치에 복원했고, 1957년 수리 당시 잘못 복원된 옥개석의 방위와 추녀 위치를 바로잡는 등 과학적·인문학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보존 마친 탑, 제자리로

지광국사탑 보존처리를 위한 해체가 이뤄지면서 함께 논의된 것이 탑의 환지본처였다. 보존처리가 본 궤도에 오르자 문화재위원회(현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는 2019년 6월 원주 법천사지 이전을 결정했다. 보존처리가 완료된 지광국사탑의 부재들은 2023년 8월 1일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됐다. 탑의 부재들은 복원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기획전시 공간에서 상설 전시됐다. 지광국사탑의 무단반출이 이뤄진 후 112년 만에 환지본처가 이뤄진 것이다.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탑의 복원 위치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보존처리가 끝난 자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두고 그간 승탑의 원래 자리이던 승탑원에 보호각을 세운 후 그 안에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안에 건립돼 있는 유적전시관 내부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승탑원이 지형상 24톤에 달하는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점과 보호각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내진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복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승탑 부재들을 조립해 최종적인 복원이 이뤄진 것은 2024년 11월이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그해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112년, 1975㎞의 유랑을 마친 성보 지광국사탑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마련된 자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승탑의 귀환은 해외로 반출됐다가 박물관에 수장된 성보유산이 지방자치단체, 불교계, 지역 시민사회의 힘으로 환지본처된 모범사례다. 일제에 의해 자리를 떠난 불교의 성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기에 현재 본래 자리를 떠나 박물관 소장품으로 활용되는 성보문화유산들의 제자리 찾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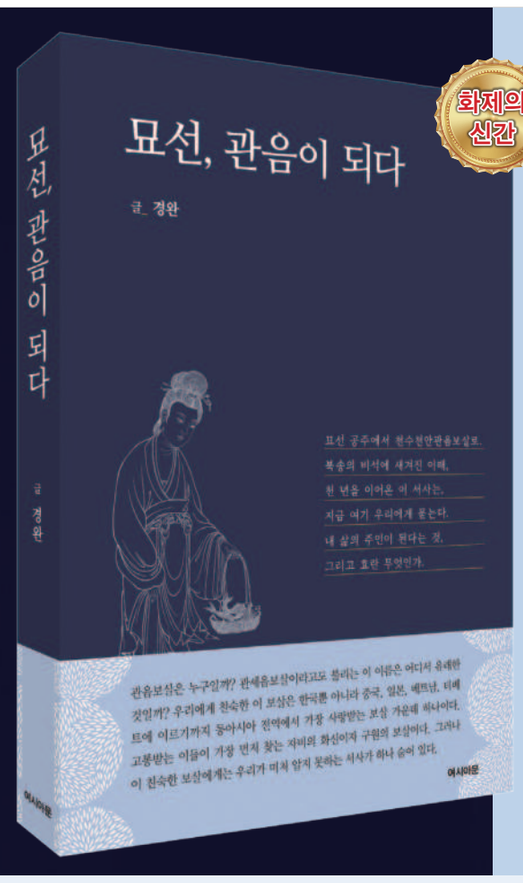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81호 | 14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 방편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원주
- 대지 : 1500평
- 법당 : 4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북대구
- 부지 : 250평
- 법당 : 50평, 요사 : 40평
- 주차10대
- 매가 : 1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300평, 법당 23평, 종무소 10평, 요사채 40평
- 마애불, 법당4평, 산신각, 용왕전
- 태양광-태양열 설비 완비
- 가액 : 3억 3500만원

010-5097-528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총 870평 중 답 50평, 나머지 대지매매
- 178평 건물 3동
- 가액 : 26억 (대출 13억 5천만원)
- 절, 굿당 하기 좋은 자리 천성산 앞 계곡 물 흘러갑니다

010-4735-8100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토 지 경 매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94
- 임야 : 2093제곱미터
- 감정가액 : 2억원
- 2024타경 6235
- 매각회차 2회 / 매각기일 2026.6.8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최저매각가 : 1억 4000만원
- 굿당용 조성 토지, 미등기 건물 존재

문의 055-862-2115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 43평. 삼성각 2평. 용왕각 3평. 요사채 1층 38평 외 공양간30평. 2층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 등
- 가격 : 10억 (조정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전철역 바로 앞(최고의 위치)
- 보증금, 시설비 3500만원/ 월세 77만원 (저렴한 월세)
- 법당 : 20평(주거시설 완비, 거주가능)
- 삼존불, 에어컨, 냉장고, 도시가스 보일러 시설(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90-4490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개인사유로 매매합니다.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대지 : 25평 시유지 7평
- 법당 사용 32평가량
- 현재 재개발확정 지역이고 주변은 이미 철거되었음. 스님께서 40년동안 수행하시며 신도관리 해오시다가 이제 연세가 들어 관리가 힘들어 내놓음.
- 가액 : 1억 6천만원

010-5271-2136

포교법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운치있고, 5년간 자리잡은)
쌍화차 전문 찻집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 종목 : 소문난 쌍화차 전문 외 수제차, 커피, 팥빙수 등
- 규모 : 대지 300평, 건평 1,2층 50평 씩(100평)
- 보증금 : 2000/160, 3000/150 1층만 사용, 조정가능
- 권리금 : 상화차 및 시설 등 조정가능
- 특징 : 천년고찰 및 대형주차장 무료사용

010-2626-5155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영적치유의 기적 (1)

- 10分 내로 통증이 멈출 수 있다 -

여성얼굴 피부미용 및 전신피부병 치유가능
010-5265-4144



-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 말기암 상담
- 구안와사, 급 · 전신마비
- 영가장애, 오래된 고질병
- 원인불명의 통증, 정신적 고통 등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책이름 검색해 보세요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010-5105-50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화합으로 종단 일으켜 중생 제도 나서라



대한불교법화종 제14대 종정 암현 스님이 창종 80주년을 맞아 주석처인 강원도 평창 연화사에서 본지와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다. 1975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기획실장 · 교무부장 · 강원교구 종무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암현 스님은 이날 지난 8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종단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바른 견해로 종단을 세우고(정견입종), 화합으로 일으키며(화합흥종), 함께 중생을 구제하자(공제군생)"는 교시를 내렸던 암현 스님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다툼 없는 화합과 법화사상의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① 법화종 80년, 새시대 새울림
② 총무원장 관효 스님에 듣다
③ 종정 스님께 듣는 법화 지혜
④ 법화종 이끄는 스님들 만나다
⑤ 사진으로 보는 법화종 발자취

대한불교법화종이 5년여의 내홍을 완전히 매듭짓고 새 어른을 맞이했다. 창종 8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제14대 종정으로 추대된 암현 대종사 예하를 뵙고 고통받는 현대 사회를 향한 지혜의 가르침을 들었다. 〈편집자 주〉

Q 창종 80주년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종단의 최고 어른이자 정신적 지주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취임 소회가 어떠신지요?

헌첩식에서 "오늘 받는 헌첩이 산처럼 무겁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의 수사가 아닙니다. 종정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처님과 종도들 앞에서 더 무겁게 스스로를 살피는 자리입니다. 종단이 오랜 내홍을 지나 다시 일어서야 하는 때이니 그 무게가 어찌 가볍겠습니까.

다만 이 무게를 저 혼자 지는 짐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산은 한 사람 어깨에 올리면 짐이 되지만, 대중이 함께 받들면 도량이 됩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지는 원력으로 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바르게 보고, 함께하고, 함께 건네는 '기본'입니다.

Q 전 종정 도선 스님께서 종단 화합을 위해 용퇴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다져놓으신 '화합의 반석'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키실 계획입니까?

전임 도선 대종사님의 용퇴는 당신의 뜻보다 대중을 앞세운 큰 회향입니다. 화합의 반석을 다지는 일은 좋은 말만 반복해서 되지 않습니다. 화합은 만나야 생깁니다.

각 교구와 사찰, 비구니 스님들, 원로와 후학, 재가불자까지 종단 안의 여러 목소리가 법(法) 안에서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합을 제도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종헌·종법을 정비하고 교육 체계를 세우는 것이 곧 화합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초를 놓는 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Q 취임 법어에서 '정견입종(正見立宗), 화합흥종(和合興宗), 공제군생(共濟群生)'을 첫 교시로 제시하셨습니다. 참뜻이 궁금합니다.

바르게 보아 종단을 세우고, 화합으로 종단을 일으키며, 함께 중생을 건지자는 뜻입니다. 종도들이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는 생활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정견입종은 종단의 재산, 제도, 인사를 사사로운 눈이 아니라 공심(公心)으로 바르게 보아야 분란이 사라진다입니다. 화합흥종은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바른 견해 위에서 서로를 살리는 화합을 의미합니다. 공제군생은 종단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면 안 됨을 말합니다. 신도들이 위로받고 후학이 배울 길을 찾을 때, 우리의 노력이 중생을 향할 때 비로소 법이 살아납니다.

Q "나의 교시가 명령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는 한 줄의 점검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종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지침을 가졌으면 합니까?



정견으로 종단 일으키고
화합하에 종단 중흥 발전
중생 구제 대원력 세우는
법화사상 실천 교시 내려

교시가 남을 꾸짖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바르게 보았는가, 화합을 깨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마음을 냈는가."

구체적으로는 말과 행동을 맞추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사찰 재정과 종단 재산은 투명하게 살펴야 하며,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찰을 함께 붙들고, 외로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리에서 법화의 실천이 시작됩니다.

Q 올해는 혜일 정각 대종사께서 종단을 중창하신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종도들이 회복해야 할 '창종의 초발심'은 무엇입니까?

법화경 일승(一乘)의 마음으로 누구도 버리지 않고 품겠다는 원력입니다. 혜일 정각 대종사의 길은 좁은 종파 의식으로 사람을 가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양성은 살리되 법화의 중심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초심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종단을 세웠는가"를 다시 묻고, 작은 사찰 하나, 외로운 신도 한 사람, 배울 길을 찾는 후학 하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초발심입니다.

Q 명실상부한 '제2의 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면, 안에서는 그 신뢰를 감당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신뢰의 제도화'입니다.

교육기관과 수계 체계, 재정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여 사람이 바뀌어도 공정하게 굴러가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총본산 안정사를 중심으로 가람 정비, 성보 보존, 교육기관 설립을 통합 추진하여 미래 100년의 뿌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Q 미래 100년을 이끌 청년 불자와 다음 세대 출가자 양성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단을 살리는 일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총본산 안정사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 출가자 기초교육부터 주지·임원 연수, 재가 신도 교양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체계화하겠습니다.

청년 불자에게는 '시키는 일'이 아닌 '배울 길'과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종단의 초대 종정이 비구니 스님이셨던 자부심을 살려 교육, 포교, 복지 영역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 전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겠습니다.

Q 1975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이래 50여 년간 수행해 오셨습니다. 스님의 삶을 지탱해 준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만행의 시간, 작은 절 살림을 살던 시간 모두가 제게는 공부였습니다. 제 마음을 지탱한 말은 "종신행선 선유부족(終身行善 善猶不足), 일일행악 악자유여(一日行惡 惡自有餘)"입니다. 평생 선을 행해도 부족하고, 하루만 악을 지어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수행은 내 몸과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었다고 남을 내려다보면 공부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을 받들어 줄 때 참된 공부가 됩니다.

Q 물질주의와 극단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묘법연화경』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의 가르침이자, "그 누구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일상에서의 실천은 내 앞의 사람을 가난, 학벌, 시주 크기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되자고 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이웃과 원수까지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안부 전화 한 통이 큰 법문이 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듯 서로를 공경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사부대중과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위한 축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화종의 새로운 100년은 오늘 내 앞의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고단한 사람도 부처 될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사람이며, 외로운 사람도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을 조금 더 덮어주고,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대한불교법화종 사부대중과 모든 중생의 길 위에 두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교 AI 윤리 선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⑪ 바티칸의 AI 회칙, 우리는 무엇을 답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가"

AI는 정말 인간의 헛된 욕망을 쌓아가는 바벨탑일까. 지난 5월 25일 바티칸 시노드 홀에서 한 문서가 발표됐다. 바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였다. 우리말로는 '고귀한 인류'라고 옮길 수 있다. 가톨릭에서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주교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공식 사목 서한으로, 교회의 문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형식에 속한다. 비록 가톨릭교회의 문서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안에 담긴 물음은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모두를 향한다.

사실 바티칸이 AI 문제에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IBM 등과 함께 '로마의 호소(Rome Call for AI Ethics)'를 통해 '알고리즘의 윤리'를 천명한 바 있다. 이어서 2025년에는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 공동 문서인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에서 "AI는 인간 지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칙은 오랜 숙고의 연장선 위에 놓인, 가장 권위 있고 종합적인 응답인 셈이다. 발표 자리부터 그러했다. 교황이 회칙을 직접 발표했고, 그 자리에는 여러 추기경과 신학자들은 물론, 클로드를 개발한 AI 기업 앤트로픽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Christopher Olah)까지 함께했다.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들과 첨단 AI 기업의 창업자가 한자리에 앉은 이 장면 자체가, AI 문제가 더 이상 어느 한 진영의 일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사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가톨릭만이 아니다. 개신교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무분별한 AI 개발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이윤이 아닌 생명을 위한 기술"을 촉구했고,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협력 기구(OIC)와 여러 울라마 협의체가, 샤리아의 정의와 책임, 인간의 감독을 기준으로 AI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힌두 전통에서도 다르마와 아힘사(불살생)를 토대로 한 AI 윤리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인류의 오랜 영적 전통들이 약속이나 한 듯 AI 앞에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교황은 이번 회칙을 통해 인류가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바벨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의 길이다. 바벨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계획, 하나의 권력을 통해 서로 갈라지고 흩어지는 불안을 이겨 내려 했다. 그러나 그 결속 안에는 이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양성을 지우는 획일성, 하늘에 닿으려는 자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것이다. 교황이 AI시대를 바벨탑에 빗대어 읽어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늘의 AI 개발 경쟁 역시 더 빠른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큰 연산 능력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기술은 연결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연결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의 노동을 무시하며 누군가의 판단권을 빼앗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더 정교한 바벨탑일 뿐이다.

교황 레오 14세 "AI 무장해제" 회칙 발표
AI시대를 바벨탑에 비유, 인간 존엄 강조
기술, 지배 · 경쟁 언어에서 풀어내란 요청
불교도 시대 고통 앞서 침묵하지 않기를
자비를 인간 몫으로 지키겠다는 서원 필요

"AI를 무장해제한다"는 말

이번 회칙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는 "AI를 무장해제한다"라는 말이다. 이는 기계를 부수거나 기술을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다. 무장해제란 기술을 지배와 경쟁의 언어에서 풀어내자는 요청이다. 오늘날 AI는 이미 군사와 금융, 교육과 의료, 행정과 언론, 노동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 과정에서 AI는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권력의 형태를 만든다.

전쟁의 영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계산할 수 있는 위험 점수와 표적 분류로 환원될 때, 살상은 더 차갑고 더 빠르며 더 책임 없는 일이 된다. "기계가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만, 실은 책임을 지워 없애는 말일 수 있다. 회칙이 "어떤 알고리즘도 전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목할 것은 회칙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교회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대목이다. 교황은 발표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기술적 해답은 없고 전문가를 대신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간에 관한 지혜를 내어놓으려 한다"라고 선언한다. 침묵하는 관조자가 아니라, 끝까지 묻고 대화하는 동반자로 남겠다는 다짐이다.

선언 이전에 서원(誓願)이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불교를 향한 물음이 되돌아온다. 가톨릭이 이렇게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면, 연기와 자비의 전통인 불교는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AI라는 대변혁 속에서, 인류의 다양한 종교 전통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모아 가고 있다. 불교 역시 이제 그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의 언어로 같은 물음에 응답할 차례다.



가톨릭이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면, 연기와 자비의 전통인 불교는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AI라는 대변혁 속에서, 인류의 다양한 종교 전통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모아 가고 있다. 불교 역시 이제 그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의 언어로 같은 물음에 응답할 차례다.
AI Grok 생성 이미지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가톨릭이 했으니, 불교도 해야 한다"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선언은 경쟁의 형식도, AI라는 유행어로 불교의 현대성을 홍보하는 장식도 아니다. 불교 AI 선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가톨릭의 AI 회칙이 제시하는 비전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 AI를 둘러싼 문제를 주로 '인간 존엄'과 '인간 중심'의 언어로만 규정함으로써, 인간 이외의 존재가 겪는 고통과 손상을 부차적인 차원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사용을 둘러싼 윤리적 책임을 주로 인간 사회 내부의 정의와 권리문제로 다루면서, 그 이면에서 파괴되고 소모되는 생태계와 다른 생명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전면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인간 존엄이라는 언어를 존중하되, 그 지평을 모든 중생의 고통과 생태적 관계망까지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가 삼키는 전력과 물, 모니터 화면 너머에서 저임금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손길,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욕망과 중독. 이 모두는 제각기 흩어진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올을 당기면 나머지가 함께 딸려 오는 하나의 그물이다. 화엄(華嚴)의 인드라망은 그물코마다 박힌 구슬이 서로를 비추어 온 우주를 머금는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AI시대의 디지털망에서는 그 상호 비춤이 곧 상호 책임으로 바뀐다. 내가 누리는 편리의 불빛 하나가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노동과 괴로움으로 번져 가는 까닭이다. 그 보이지 않는 연기(緣起)의 그물을 끝까지 읽어내는 일, 불교가 이 시대에 건넬 수 있는 응답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불교가 세상을 향해 관점과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일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모호한 침묵은 때로 기술의 방향을 묵인하는 또 다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권장하는지를 분명한 언어로 내놓을 때, 비로소 수많은 불자와 사회가 의지할 하나의 좌표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이 선언은 선언문이기 이전에 서원(誓願)이어야 한다. 기술을 거부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자비를 기계에 떠넘기지 않고 인간의 몫으로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개발자만의 몫이 아니라 종단과 불교 언론, 스님과 재가 불자 모두의 몫이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자리와 판단, 마음의 습관을 조용히 재정렬하고 있다. 그 속도는 우리의 성찰을 기다려 주지 않으며, 머뭇거리는 동안 기술의 방향은 탐욕과 경쟁의 논리 안에서 굳어져 버린다.

불교 AI 윤리 선언은 그 흐름 앞에 세우는 기준이자, 고통받는 존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표현이다. 한국불교가 이 논의의 자리에 책임 있게 들어서는 첫걸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지혜 품고 행복 물들이는 화왕〈花王〉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⑪ 불국토를 장엄하다, 꽃들의 왕 모란(牡丹)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성황리에 거행됐다. 요즘 MZ세대가 쓰는 단어인 '힙불교'라는 말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다. 그렇기에 요즘 주목받는 예술 분야가 바로 불교미술이다. 그런데 수많은 불교미술을 살펴보면 '모란(牡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제작된 소통(疏筒)과 불패(佛牌) 바탕을 보면 붉은 모란으로 가득 채워 놓았고, 괘불을 비롯한 여러 불교 회화에는 부처님을 에워싼 신광(身光) 주변에 모란이 장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식, 사찰벽화 등 여러 불교미술에도 모란은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여러 불교 경전과 기록에서 모란이 언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모란은 우리 불교문화에서 연꽃과 대등할 만큼 비중 있는 문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모란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불교미술 속 모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신라의 모란, 교훈을 주는 화왕계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모란의 기록은 신라 선덕 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7)의 〈지기삼사(知幾三事)〉 속 모란 이야기와 원효 대사(元曉大師, 617~686)의 아들이자 대학자 설총(薛聰, 655~?)의 '화왕계(花王戒)'이다. 설총이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에게 들려주었다던 '화왕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어느 날, 꽃들이 살던 나라의 왕 모란 앞에 빛나는 얼굴에 아름다운 옷을 차려 입은 장미와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할미꽃이 나타나 자신을 써 줄 것을 청했다. 장미는 자신의 미모와 요염함을 내세워 모란을 곁에서 모신다 했고, 할미꽃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음을 내세우며 쓰지만 도움이 되는 약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자 할미꽃은 "제가 온 것은 임금님께서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뵈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 된 자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는 이는 드뭅니다"라고 말하며 꾸짖었고, 그제서야 모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할미꽃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문왕은 큰 깨달음을 얻어 이를 기록해 대대로 교훈으로 삼게 했고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미는 아첨만을 떠는 간신(奸臣)을, 할미꽃은 왕이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충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충신(忠臣)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신하를 옆에 두는가에 따라 성군(聖君)이 될 수도, 폭군(暴君)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알려 준다.

사찰에 자리 잡은 모란과 최치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들여올 수 있었던 모란은 당시 궁궐이나 귀족들이 살던 집 정원 정도에서만 심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귀한 모란을 모든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사찰이었다.

사찰에 모란이 심어지게 된 계기는 당시 중국 유학을 다녀온 유학생들에 의해서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신라 6두품 출신 학자인 최치원(崔致遠, 857~?)으로 알려져 있다. 최치원은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관직에서 물러나 전국을 유랑했는데 〈태평통재(太平通載)〉에 실린 그의 기록 중 모란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 주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속세를 떠나 산과 강에 묻힌 스님들을 찾아갔다. 작은 서재를 짓고 석대에서 문서를 탐독하고 풍월을 읊조리며 그 사이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았다. 남산 청량사(淸凉寺), 합포현(合浦縣) 월영대(月影臺), 지리산 쌍계사(雙溪寺), 석남사(石南寺), 묵천석대(墨泉石臺) 등에 모란을 심어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 모두 그가 떠돌아다닌 흔적이다.

물론 〈태평통재〉가 조선 중기에 간행됐고, 내용 가운데 그가 요절한 두 자매의 영혼을 만나 사랑을 나눴다는 등의 판타지 요소도 일부 있지만 말년 부분에 있어서는 〈삼국사기〉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최치원에게 모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하필 사찰에 모란을 심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당나라 사찰 정원에 모란이 많이 심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유학생 시절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가 말년에 여러 사찰을 방문했다는 정황상 자신의 심신을 불교에 의지하고 유학 생활을 추억하면서 사찰 곳곳에 모란을 심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기록에 등장하는 사찰 중 청량사는 최치원이 마지막으로 은거했다고 전하는 해인사와 동일한 합천에 위치하며, 〈삼국사기〉에도 그가 청량사와 쌍계사를 즐겨 찾았다는 내용이 있다. 여러 기록을 통해 당시 귀하게 여겨졌던 모란이 사찰에 심어지게 됐고, 그 배경에는 최치원이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 내부 천장 모란문(조선 후기).


수월관음도(고려 14세기,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왼쪽 하단에 표현된 모란.


목조 소통(조선 후기, 통도사성보박물관).

연꽃에 대등할 만한 비중 있는 문양
중국 다녀온 유학생들이 사찰에 심어
고려시대부터 불교미술에 본격 등장
복식 문양과 불화 속 공양화로 표현

공양화, 부처를 찬양하다

모란은 신라부터 전래됐고,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범종과 기와, 승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란이 불교미술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재배와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고려시대부터다. 고려 사람들의 모란 사랑은 각별했다. 당시 최고의 문장가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 중에는 꽃을 주제로 한 사례도 꽤 전해지는데 이 중 모란에 관한 시는 20여 편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정습명(鄭襲明, ?~1151)의 '석죽화(石竹花)' 중 "세상 사람들이 붉은 모란만을 좋아하여 뜰에 가득히 심어 두지만"이라는 구절에서는 당시 집집마다 모란을 심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는 불교국가였고 자연스레 고려 불교미술 속에도 모란이 표현되기 시작한다. 이는 고려미술을 대표하는 도자기와 금속공예에도 보이지만 백미는 역시 화려한 귀족불교를 보여주는 불교회화다. 고려 사회에는 현실과 사후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이 성행해 아미타 신앙이 유행했고, 고려불화 대부분이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주제로 제작된다.

고려불화 속 아미타 부처님은 붉은빛과 금빛으로 빛나는 대의(大衣)를 걸치고 있는데, 대의에 새겨진 큼직한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덩굴 문양과 모란이 조화롭게 얽힌 모습이다. 이와 같이 불화 속 인물의 복식에 그려진 모란은 고려시대 사람들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당시 복식문화까지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모란은 복식문양뿐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께서 머문다는 보타락가산에서도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모든 중생을 구원해 준다는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부처님 못지않게 유행했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수월관음도에서는 산 중턱에 앉아 계신 관세음보살과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온 선재동자, 그리고 갖가지 보석와 함께 배치된 모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 속 모란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도 하려는 듯이 가지런히 꽂꽂이한 투명한 수반(水盤)과 화병에 담겨 관세음보살 바로 발밑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불화 속 화병에 담겨진 모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불보살에게 바치는 '공양화(供養花)'일 가능성이 높다. 예로부터 꽃은 '만행화(萬行花)'라고 하여 인고의 세월을 견뎌 봉오리를 피운다는 수행의 상징물로 향·등·과일·차·쌀과 함께 육법공양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공양물에는 각기 희생과 광명, 깨달음, 청량, 환희의 뜻이 내포돼 있으며 수행을 상징하는 꽃 역시 이들과 함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불보살에게 바치는 공양화를 수많은 꽃 가운데 하필이면 모란으로 표현한 것일까?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동양에서 모란은 꽃들의 왕, 꽃 중의 꽃이었다. 이런 인식에서 모란은 귀한 상징으로 여겨져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왕실과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모란이 대중화된 고려시대에도 최고의 꽃이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공양이란 불보살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꽃을 올리는 헌화공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은 무엇일까? 물론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도 있겠지만 사람의 선택은 당연히 모란이었을 것이다. 불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꽃 또한 가장 화려한 모란이요, 그 격에도 맞다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최고의 꽃 모란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화로 인식됐고, 이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화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표현 범위가 점차 넓어져 수미단(須彌壇), 불패 등 다양한 불교미술 주에 등장한다. 여기서 수미단은 부처님이 계신 수미산(須彌山)을 형상화한 불단을 의미하니 불국토를 공양화인 모란으로 장엄하는 것이고, 불패 또한 부처님 그 자체를 상징하니 그 주변을 모란으로 꾸미는 것이 곧 헌화공양인 것이다.

공양화, 부처를 찬양하다

모란은 불교에 자리 잡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왔다. 우리 불교문화 속 모란은 아름다운 화왕인 동시에 지혜와 교훈을 주는 매개체로, 헌화공양을 하는 공양화이자 행복의 아이콘으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모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5월은 모란이 꽃을 피우는 시기인 동시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달이었다. 이를 기념해 부처님을 상징하는 화중지왕 모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여태껏 가지고 있던 힘든 마음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용덕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맞닿은 원력, 서로를 품고 피어나길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㉞ '갯마을 차차차'(2021)



'갯마을 차차차'는 홍두식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해결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베푼 진심 어린 보살핌과 윤혜진의 사랑을 통해 그가 비극적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다. 우리 곁에도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한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1972년에 일본에서 방송된 '아스토로 강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에 '우주소년 짱가'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다른 행성에서 가져온 '살아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짱가라는 로봇이 주인공과 하나가 돼서 우주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으로 시작하는 주제가는 지금도 꽤 유명하다. 종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덕분이다.

짱가 주제곡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져 2004년에는 주제곡 가사를 따서 제목으로 만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 반장'이라는 긴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쫓겨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병원을 개업한 치과 의사와 바닷가 마을의 온갖 일을 챙기는(혹은 참견하는) 홍 반장이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수십 가지 자격증을 소유한 홍 반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어디선가 틀림없이 나타나 무슨 일이든 해결해 주는 짱가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2021년, 영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갯마을 차차차'라는 제목으로 탄생했다. 오늘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명문대 치대 출신으로 억대 연봉을 받던 페이 닥터 윤혜진(배우 신민아)은 과잉 진료 문제로 원장과 대립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만다. 홧김에 커뮤니티에 폭로 글까지 올리는 바람에 더 이상 서울에서는 재취업의 싹이 잘리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바닷가 마을 '공진'을 찾는다. 하지만 추억은 잠시, 차는 고장 나고 구두와 지갑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혜진. 이때 우연히 만난 홍 반장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참에 공진에 자리 잡을 결심을 한다.

강원도 청호시 공진마을 반장 홍두식(배우 김선호)은 이 마을 최고의 해결사다. 찜질방 매점을 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리스타가 되기도 하며 부동산 중개에 목수 일과 인테리어까지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나선다. 보상은 오직 시간당 최저 시급. 그렇다고 홍 반장이 그저 손재주 조금 있는 아마추어는 아니다. 자격증만 수십 개를 가진 '황금 손' 전문가. 이런 만능 해결사 홍 반장 앞에 어느 날 바다에 구두를 빠트린 혜진이 나타난다. 홍 반장은 지갑을 잃어버려 난처한 혜진에게 일당 3만원을 벌게 해주고, 결국 치과를 개원하는 혜진에게 병원 건물을 중개해 줄 뿐만 아니라 내친김에 인테리어까지 도맡는다.

그리하여 혜진은 홍 반장 덕분에 일사천리로 자신의 병원을 여는 데 성공하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자이자 도시주의자인 혜진에게 시골 마을 공진에서의 삶은 녹녹지 않다. 이 마을에서는 사생활이란 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남의 인생에 무슨 관심은 그렇게도 많은지 사사건건 조언과 간섭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러니 혜진은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빚고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홍 반장의 중재로 서서히 마을에 적응해 간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원작 영화의 줄거리대로 까칠한 치과 의사 혜진과 해결사 홍 반장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갯마을 차차차'라는 제목답게 어촌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진마을 3대 미스터리 중 하나가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라는 통장 여화정(배우 이봉련)과 동장 장영국(배우 인교진)은 만나면 으르렁대면서도 도대체 이혼한 부부가 맞나 싶은 케미로 '사랑과 전쟁'을 보여주며 짠한 웃음을 주고, 혜진의 친구이자 치위생사인 표미선(배우 공민정)과 공진파출소 순경 최은철(배우 강형석)은 풋풋한 사랑으로 따스한 미소를 짓게 한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은철의 비밀은 공진마을 3대 미스터리 중 또 하나인 로또 당첨

2004년 개봉 영화 바탕 리메이크 작품
마을 해결사 홍 반장–치과 의사 혜진의 러브 스토리 등 어촌 다양한 이야기 담아
죄책감 속 홍 반장 구한 건 마을 사람들
우리 곁에도 서로 지켜줄 존재 많아지길



'갯마을 차차차'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자라는 것. 심지어 당첨금 14억원에서 세금 떼고 7억원을 기부하고 3억원 정도 남은 돈으로 미선과 살 집을 짓겠다는 비범한 청년이다.

이들은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인데, 특히 영화와 구별되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만의 의미를 드러내는 인물이 할머니 3인방이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홍 반장과 인연이 깊은 김감리(배우 김영옥) 할머니다. 감리 할머니는 공진의 원로이자 정신적 지주이며 할머니들의 대장이다. 광복군 출신인 아버지가 태극기의 '건곤감리'에서 따온 '감리'라는 이름도 범상치 않다. 감리 할머니는 홍 반장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홍 반장을 친손자처럼 밥해 먹이며 키웠다. 홍 반장을 친손자 이상으로 아끼고 위한다.

한편 영화에서 홍 반장에게는 3년의 행적이 비밀이었는데, 드라마에서도 이 설정을 활용한다. 다만 3년을 5년으로 늘이고, 이것을 공진마을 제1의 미스터리로 삼아 영화에서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던 홍 반장의 과거 행적을 설명한다. 그 시작은 혜진의 대학 선배이자 유명한 예능 PD인 지성현(배우 이상이)이 공진마을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답사차 공진에 등장하면서부터다. 혜진을 둘러싸고 약간의 질투 어린 삼각관계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결국 성현과 홍 반장은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데,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다. 홍 반장의 본명인 '홍두식'이란 이름을 들은 성현의 스태프인 도하(배우 이석형)가 갑자기 분노하며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드러난 과거의 아픈 사연.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같이했던 선배를 따라 펀드매니저가 된 두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비아저씨의 펀드 추천 부탁에 못 이겨, 다른 펀드매니저의 명함을 건네주며 "연결은 해주지만, 절대 대출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충고를 건넸다. 그러던 중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고, 출근하는 두식에게 달려와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아들의 학자금과 취업 자금 등으로 돈이 급해 두식의 충고를 무시하고 대출까지 받아 주가 연계 증권 상품에 가입했던 것. 그 후, 사태 해결에 정신이 없던 두식이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경비 아저씨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만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두식은 선배와 함께 아저씨를 찾아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한다. 불행에 불행이 겹친 사고로 선배마저 세상을 떠나는데, 알고 보니 경비 아저씨가 도하의 아버지고, 두식의 선배가 바로 성현의 사촌 매형이었다.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느낀 두식이 병원에서 나와 한강에 뛰어들려는 순간, '보고 싶다'는 감리 할머니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감리 할머니 덕분에 마음을 다잡은 두식은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어린 공진으로 귀향한다. 이 같은 과거 이야기를 혜진에게 들려주며, 두식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불도 안 들어오는 빈집에 나를 가뒀는데 사람들이 자꾸 문을 두드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나한테 뭘 먹여. 날 들여다봐. 꼭 혼자 있는 길고양이 돌보듯이 무심하고 따뜻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막 나한테 뭘 부탁하더라.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 '세탁기가 고장 났다', '잠깐만 와서 카운터 좀 봐줘라.'"

이어지는 혜진의 말. "그게 지금의 홍 반장을 만들었구나. 공진이 홍 반장을 살렸네."

드라마가 시작할 때만 해도, 홍 반장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는 듯했지만, 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홍두식을 보살펴 지금의 홍 반장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던 두식은 이웃들과 혜진의 사랑 덕분에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온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으로 시작하는 짱가 주제곡이 하고 싶은 말은 그다음 가사에서 드러난다.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의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주 악당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짱가의 원력이 불러오는 신통력인 셈이다. 마치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괴력을 발휘하는 부모들처럼, 중생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자비의 두 팔로 건져주시는 불보살님들처럼.

공진마을 사람들이 무심한 듯 살뜰히 홍 반장을 지켜주었듯이, 홍 반장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듯이, 우리 곁에도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짱가'와 같은 존재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한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도 노예가 되지 말라

마음공부의 필요성

질문 요즘은 정신세계에 관심을 갖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삶을 즐기다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마음공부를 해야 할까요?

답변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예요. 육신이 무효라고요. 송장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과 그 자기 마음, 이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놓고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폭이 되죠, 자기가 알기를.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영화배우들이 감독에 의해서 모든 거를 소임을 맡아 가지고 영화 탤런트가 돼야 되는데, 감독을 쑥 빼 버리고 자기 자유껏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의 감독이라는 자체의 참자기가 있고 지금 물질세계의 현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납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겠죠? 정신세계를 모르면 지금 현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살기가 점점 급박해져요.

예를 들어 지금 과학이 발전이 돼서 로켓이 올라가고 컴퓨터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도, 비행기가 간다 이러면 컴퓨터에 의해서 나온 대로 이게 조정을 해야 하지만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죽거린다면 그건 첨단의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중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계가 만약에 버스라면 버스 속에 다 타고 여러분이 다녀도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 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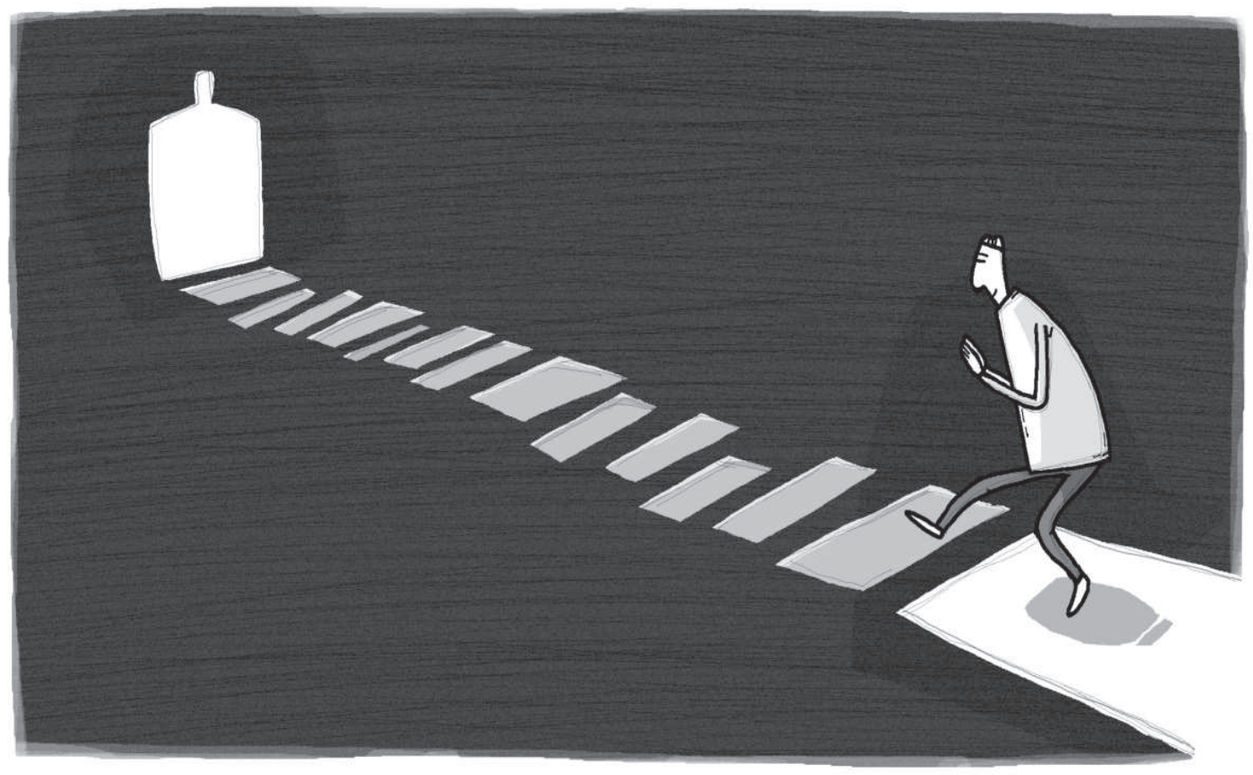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 거와 같이 자기가 정신계에 집중을 안 하고 모른다면 물질계에도 발전이 못 돼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테두리가 있어서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즉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테두리에 덮여 있는 뚜껑이 덮여 있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런데 글로 써 놓는 거는 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뚜껑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 자유권의 과학이요.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서, 앞으로 드문드문 그런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 스무 살 가까웠을 때 그 접시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접시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그 마음으로서 그대로 움죽거리는구나.' 하는 거를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 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풀어 나가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저 우주 세계를 가려도 한 찰나예요. 또 바로 앞을 내다보는 거나 저 우주 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같아요. 맞먹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의 모든 거를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거, 어디서 온 거,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신족통, 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게 이 진리이니까요.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천차만별의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넝마나 무쇠가 모이는 데가 아니죠. 또 무쇠전에 금이 갈 리 없죠. 넝마전에 금이 갈 리 없고 깡통 공장에 금이 갈 리 없고.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모두 차원에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차원대로 모두 살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같이 모이지 말라 그래도 같이 모여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죠. 누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가르치지 않아도 금반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누가 이래라저래라 안 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아주 차원대로 그냥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고야, 사대 성인들도 다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이랬거든요. "너부터 모른다면 이 우주의 섭류를 다 모르느니라. 너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의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끓어올라요

질문 무슨 인연인지 회사에 같이 일하는 한 동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끓어올라 힘들어요. 그 인연도 저를 공부시키는 주인공의 나툼이겠지요?

답변 그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게 전부 문수라고 그러죠. 요놈! 이게 주자거든요. 주걱이 아니라 주자예요.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주걱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방울 나오는 것이 요놈,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고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이거든요. 아, 팥죽 속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팥죽 방울이. 그러니까 내가 살림살이 하는 게 이게 팥죽 끓듯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생명들이요,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여러분이 된다면 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다니거든요. 사형이 보니까 아, 요놈이 또 연애 걸러 가거든요. 그런데 몸뚱인 놓고 그게,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고 그냥 연애 걸러 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탁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그냥, 인젠 안 그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죽 솥에 죽 끓듯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뭉쳤기 때문에 고덩어리니깐요.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써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는 나오는 대로 그냥 말도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쩌고 그러고, 미우면 "그거 차에도 치여 죽지 않나?" 그러고.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외려 죄업이 벗어져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까 '이 둥우리는 냉랭한 둥우리구나.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는 거리로 나돌다가 점점 더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얘, 너 어디 가서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때는 "덥지나 않았니? 뭐라도 좀 먹었니? 얘, 너를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주인공에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종이에다가 그렇게 뽀뽀 한 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그러고 냉장고에다 붙여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금자리가 따뜻해서 바로 화목해지고 딴 데로 이탈이 되질 않아요.

맷돌에 심봉을 딱 끼고선 맷돌을 돌리고 거기다가 물건을 넣으면 잘 갈려 나오지만 심봉을 잘 꽂질 않고 하면 그냥 그게 맷돌이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도 갈리질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탈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딨습니까. 그 대신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이요, 중용입니다. 좀 인간이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이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펄펄 뛴다 하더라도 펄펄 뛸 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 '에이, 죽는 것도 너로 인해서, 사는 것도 너.' 이런다면 펄펄 뛸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려면 주인공이 외려 딴 사람을 시켜서 쿡쿡 찌르게 만들고 일을 벌여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가지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이 나죠. 그럭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거기서 나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구, 알았구나.' 그러고선 그냥 없어져요. 팥죽 솥에 팥죽 끓는 것 탁 치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올라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오는 대로 거기다가 그냥, 그 주자로 쳐서 거기다 놓으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무명을 벗고 또 남도 동시에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마음공부 함에 명심할 것은

질문 저는 유트브로 큰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을는지요.

답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사실, 바로 이 대뇌를 통해서 소뇌와 중뇌를 통해서 책정을 내리면 정수에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대로 현실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나쁜 것이 나왔든 좋은 것이 나왔든 나오는 대로 그 컴퓨터에 그냥 다시 입력을 해라. 그냥 거기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바로 재빨리 입력이 된다. 그러면 앞서 입력이 돼서 구정물이 나오려고 했던 것을 바로 새 물로다가 입력을 한다면 현실에 새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된 게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진행되게 할 수 있고 연구가 잘되게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는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왜냐? 둘이 아닌 까닭이죠. 뿌리가 둘이 아니요, 불성이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불,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둘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것도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설이 된 거니까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이름으로다가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신이요, 여러분이 다 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관습에 얽매이고 집착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모두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 나오든지, 밝지 못한 게 나오든지 밝은 게 나오든지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는 대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소임을 맡은 자에게, 즉 위장의 소임을 맡은 자, 방광 또는 콩팥, 척수, 척추, 이 대장, 소장 이런 데로 다 통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모든 세계죠, 이 몸뚱이도. 세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사대로 딱 통신이 된다면 그 소임자들한테 전부 통신이 되는 거예요. 전부 통신이 돼서 그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넘치고 그러는 거를 다 알게끔 되고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거는 줄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화가 없고 냉장고가 없다면 아주 편리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다가 컴퓨터가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컴퓨터를 짊어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짊어지고 다녀 봤던들 그거를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자동적인,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자 바로 우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물론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둘째는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나무들이 뿌리 없이는 못 살듯이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야죠. 셋째는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하고 놓고 산다면 모든 게 부자부럽지 않게 영묘하고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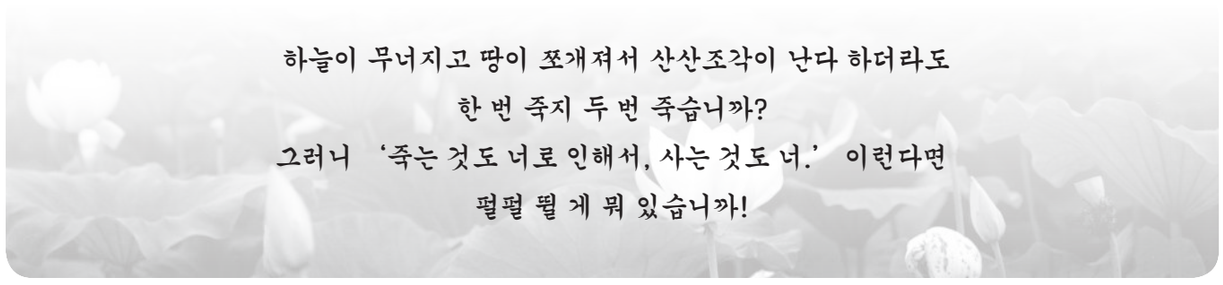
간단한 상차림의 의미

질문 다른 사찰에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선원에서 천도재를 하는 것을 보고 상차림이 정갈하고 좋다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상차림에 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우린 재사 지낼 때 과일만 놓고 둥근 떡 하나 놓곤 그냥 지냅니다. 신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일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떡집에 전화 걸어 놨다가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갈 때 들고 가서 지내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살면서 우리는 그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딱 상세계에 오를 때에는, 그 의식적으로 벌써 먹고 입고 살던 뭐, 이런 거에 착을 두기 때문에 영 상세계로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영령들을 아예 재사 지낼 때 그냥 둥근 떡 안에다가 다 그냥, 그러니까 우주 전체 안에다가 '이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거는 당신 거요.' 그러곤 그냥 다 거기다가 넣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애착, 그런 게 다 떨어져요. 그래야 상세계에 보살로 출현을 하시든가 또 선관선녀로 출현하시든가 부처로 하든가, 뭐, 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세계만 생명들이 산다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구만 생명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뜨거운 데서도 생명이 있고 차면 찬 대로 생명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사를 지낼 때 둥근 떡, 어떤 집은 영령들이 많거나 또 식구들이 많은 집은 일곱 켜를 해 놓고, 찰떡을 그릇에다 이렇게 해도 좋고 백설기를 둥그렇게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설탕만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놓으면 이 우주의 그 근본이 다 응감을 하게 돼 있어요. 우주의 근본이 다 응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법신들이 다 내려보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는 사람 움죽거리는 거까지 사왕천에서 다 이렇게 통해서 누구나 어떠한 영가든지 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려면 막대기 기다란 데다 굵은 사탕 하나 낀 것처럼 끼워 가지고, 이게 법륜이거든요. 그것이 표시예요. 그것만 들었다 하면 무사통과죠,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은 도무지 그 도리를 하나도 모르니…. 너무나 이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고 그 도리를 몰라서 울고불고 야단법석이고 아, 이러니 글쎄, 내가 어떻게 애원치 않겠어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⑩ 나는 그날 기억을 재생하고 있었다

‘안다’는 믿음, 오늘의 선율을 가리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던 날

수백 번 연주한 곡이 있었다. 새벽 다섯 시에 깨워도 손가락이 먼저 기억한다고 믿었던 곡. 악보를 보지 않아도 됐고, 눈을 감고 뜯어도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 연습은 끝났다고, 이 곡만큼은 무대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독주회를 앞두고 연습실에서 이 곡을 뜯을 때마다 그 확신은 더 깊어졌다. 이 곡은 내 것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독주회 날, 조명이 켜졌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가라앉고 나는 가야금 앞에 앉았다. 평소처럼 등을 곧게 세우고, 악기를 무릎 위에 올렸다. 호흡을 가다듬고 첫 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훈련된 근육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 음을 찾아 헤매는 내 손가락만 남았다. 분명 수백 번 연주한 곡인데, 그 순간만큼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악보 앞에 선 것 같았다. 무대 위의 정적은 길어야 3초였겠지만, 그 3초는 그때까지의 연주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나는 결국 연주를 멈추고 청중에게 양해를 구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두 번째 시작은 끝까지 갔다. 하지만 연주가 끝났다는 안도보다 이미 벌어진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무대를 마치고 관객들을 맞이하러 가는 길에서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오늘 치른 것은 독주회가 아니라, 망친 무대가 아닌가. 혹여나 내 연주에 흠을 잡을까 봐, 찾아와 준 사람들이 건네는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수고했어요”라고 했고, 누군가 “좋았어요”라고 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18년 넘게 가야금을 해온 사람이, 가야금 앞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대를 내려온 뒤에도 한동안 그 3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그 짧은 침묵이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도망칠 수가 없었다

문제는 두 달 뒤, 또 다른 독주회가 잡혀 있었다. 취소할 수도, 미룰 수도 없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무대는 왔다. 한 번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서려면 완벽해야 할 것 같았는데, 완벽해질 시간 같은 건 없었다. 연습실에 앉아도 손가락이 무거웠고, 어떤 곡이든 첫 음을 떼는 것조차 두려웠다. 18년의 세월이 3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연주자로 살아온 세월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독주회를 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번 흔들림을 딛고 더 단단한 무대를 올리는 것. 연주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그 생각. 공연 날짜가 가까

연습 무색, 독주회서 첫 음 뒤 3초 헤매어
마음 비우자 다음 연주선 실수 없이 끝나
안다는 착각, 듣기 막고 현재를 멈추게 해

워질수록 그 생각은 점점 커졌고, 동시에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실수를 덮기 위한 무대, 오명을 씻기 위한 연주. 하지만 그 단단함을 만들어낼 두 달이 내게는 없었다. 그냥 서야 했다. 서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었다.

무대에 오르던 날, 나는 처음으로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정확히는, 내려놓을 여유조차 없었다. 잘하려는 마음도, 망칠까 두려운 마음도 더는 붙잡을 힘이 없었다. 그렇게 줄을 뜯었다. 손끝이 줄에 닿는 순간, 머리가 계산하기 전에 소리가 먼저 났다.

그 무대는 잘 끝났다. 관객을 맞이하러 가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다. 두 달간 전전긍긍했던 것, 실수한 연주자로 기억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 한꺼번에 씻겨나간 것 같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건 나만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나만의 이야기가, 그날 나를 다시 무대 위의 사람으로 돌려놓았다.

준비가 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날 무대에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수백 번 연주했던 완벽한 기억을 재생하려 했던 것이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이미 두 음 앞에 가 있었다. 현재를 연주하면서 현재에 없었다. 그것은 연주의 실패가 아니라, 현재를 잃어버린 실패였다.

이미 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연주자도, 수행자도, 아마 우리 모두도. 가야금 앞이 아니어도 이런 순간은 온다. 오래 해온 일, 익숙한 관계,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며 듣기를 멈추는가. 그 멈춤이 쌓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현재가 아닌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무아(無我)를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토록 완벽한 나에 집착하는가. 이 질문이 한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그날 백지가 된 것도, 두 달간 도망치고 싶었던 것도,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도망칠 수 없어 그냥 섰을 때, 머리가 아닌 손끝이 먼저 움직였다. 어쩌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안다고 믿었던 것보다 한 발짝 더 가까운 자리일지도 모른다. 아직은 그렇게 믿고 싶다.

준비가 안 됐어도 서면 됐다. 완벽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손으로 내는 소리가 전부였다.

무대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다행이었다.

가야금 명상곡 ‘정취’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㉞ 탈모약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요?

이마 라인 후퇴, 슬퍼 말고 관리하자

흔히 탈모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먹던 약을 중단했더니 머리카락이 더 빠지더라. 그래서 안 먹어.”

“추천해 주는 약을 먹기 시작했더니, 나랑 안 맞는지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던데?”

“부작용이 생각보다 커서…. 난 모발보다는 다른 게 더 소중해.” (이 경우는 머리카락보다 자존심, 남성성을 지키겠다는 말이다.)

위 경우는 대부분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병원 탈모약을 복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한다.

정원에 있는 해충은 농약을 칠 때는 잠잠히 있다가 농약 살포를 중단하면 “어? 이제 농약 안 치네?”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코로나19 펜데믹 때 거리두기가 끝나자 사람들이 마치 보상받듯 거리로, 야외로 몰려나온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해충들이 다시 자라면서 풀들이 죽어 나가듯, 복약을 중단하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약을 중단해서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던 탈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약을 먹어보니 머리카락이 더 빠지더라는 것은 전문용어로 ‘셰딩(shedding)’ 혹은 ‘초기 탈락 현상’이라고 한다.

이는 정원 관리를 하면서 처음 관리를 시작할 때 약한 잎을 정리하고 새잎이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비유로는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대부분 이미 가늘어져 있던 머리, 즉 어차피 빠질 운명의 머리카락이었던 것이다.

셰딩 현상은 보통 치료 시작 후 2주에서 6주 사이에 시작되고 수개월 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똥차가 지나간 자리에 새 차가 온다고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에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것이다. 자라나라. 머리 머리.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이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속만 앓는 정력이 약해진다는 소문이다.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물이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남성호르몬을 조절해 탈모를 치료하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의 감소가 정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약 중단 후 탈모 심화 아닌 재진행
치료 초기, 약한 모발 일시 탈락도
부작용 자연 회복돼, 꾸준 관리 要

이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지만 절반은 사실이라는 소리다. 정력은 테스토스테론과 DHT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테스토스테론은 자동차의 엔진이며, DHT는 액셀러레이터다.

탈모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둔해지는 것이다. 액셀러레이터가 둔해지면 밟아도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엔진 출력은 그대로이며 액셀러레이터의 민감도는 곧 적응되는 문제다.

액셀러레이터가 둔해지면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간다. 반응 속도가 늦어지므로 성욕이 감소됐다고 느낄 수 있고, 마찬가지 이유로 강도나 유지력이 약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전체 복용자의 약 1~3% 정도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니 부작용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해당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수록 관련 부작용 보고가 많아졌다고 하니 심리적인 요인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병이다.

탈모 치료는 머리를 심는 마술이 아니라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농사와 같다. 단기간의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지루한 싸움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마 선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소리는 씁쓸한 자기 위로일 뿐이다.

더 이상 흩날리는 민들레 홑씨에 감정 이입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소중한 이마 선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관리해 보자.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일일시호일

원인불명 중증 질환 캄보디아 니엔 씨
“치료를 이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패혈성 쇼크·호흡부전 겹친 위중 상태
가족 곁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 치료 후에도 호흡 곤란 지속
병원비 2000만 원…치료 중단 위기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⑩

도랑 위에 놓은 다리, 아이들의 미래를 잇다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 설립 이후 학교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캄보디아 대학 수레꾼 장학생들.

캄보디아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내외 NGO들이 프놈펜·씨엠립과 같은 도시 지역에 학교를 세웠지만,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최북단 국경 인근의 황무지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수레꾼은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름에 '수레꾼'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학교는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 교육부에 정식 등록됐고, 설립과 동시에 공립학교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건물이 완공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입로도 없었고 우물도 없었으며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진흙투성이 비포장도로였습니다. 특히 6개월에 이르는 긴 우기 동안에는 길 곳곳이 패여, 작은 시골 도시인 썸라옹에서 불과 17㎞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만큼 접근이 어려운 오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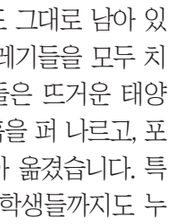
게다가 학교에 등교하려면 작은 도랑을 건너야 했습니다. 건기에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곳이었지만, 우기가 되면 정강이를 넘는 물이 흐르는 길로 변하곤 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수레꾼은 프놈펜에서 공부하는 캄보디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4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신, 장학생들은 1년에 한 번 뽀디봉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2013년 2월 1일, 그 첫 번째 봉사활동이 시작됐으며 그 후 10년간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프놈펜에서 먼 길을 달려와 중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랑 위에 다리를 놓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교문 기둥도 세우고 그 위에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라는 학교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학교 건축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던 공사 잔해와 쓰레기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대학생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삽으로 흙을 퍼 나르고, 포대와 삼태기에 담아 옮겼습니다. 특히 작은 체구의 여학생들까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삽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대학생들이 만든 다리와 교문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이 그 다리를 건너 학교에 들어옵니다. 더욱 기쁜 일은 처음에는 뽀디봉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세운 중학교였지만, 학교를 세우자마자 인근 다섯 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곳으로 진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에는 약 250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는 약 5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국경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750여 명의 아이들이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⑤ 연등 빛 아래, 부처님오신날을 밝히다

소박한 정성 모여 풍성한 봉축 온기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은 몇 주 전부터 분주해진다. 방석 하나까지 정성껏 세탁해 햇볕에 말리고, 오래된 촛대에 손수 광을 내어 본래의 빛을 되찾아준다. 대웅전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말끔히 닦아내니, 고요한 도량은 마치 새 숨을 들이쉬듯 한층 청정해진다.

이른 새벽이면 스님들과 신도들은 마당을 쓸고 꽃을 다듬으며 봉축의 날을 맞을 준비에 마음을 모은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와 산새들의 맑은 화음은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더욱 깊고 맑게 물들인다.

사찰로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의 연등이 길게 이어져, 도량을 찾는 이들을 따뜻한 빛으로 맞이한다. 정성껏 봉안된 등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소망과 발원이 담긴다. 바람결에 잔잔히 흔들리는 연등의 물결은 마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장관을 이룬다.

연등 하나를 밝히는 일은 단순한 의식에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자비심을 되찾아가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하다. 연등 아래를 천천히 걷다 보면 분주했던 마음도 차츰 잔잔해지고, 서로를 향한 온화한 마음이 도량 가득 스며드는 듯하다.

또한 이날은 나눔과 베풂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봉축법회가 끝나면 사찰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중공양이 마련되는데, 정갈한 공양상 위에는 비빔밥이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오른다. 자연의 숨결이 깃든 산중에서 정성껏 채취한 취나물과 고사리, 담백한 콩나물과 은은한 빛깔의 도라지와 죽순나물, 무생채까지 곁들여진 비빔밥은 계절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함께한 봉축 정성에 도량 한층 청정해져
연등 밝히며 서로를 향한 자비심 되찾아
대중공양으로 나눔·베풂 의미도 깊어져

대중공양에 올리는 시래기 들깨된장국과 밥은 야외 공양간 한편에 놓인 큰 가마솥 두 곳에 장작불을 지펴 정성껏 끓여낸다. 장작 타는 은은한 냄새와 함께 천천히 우러나는 국물 맛에는 산사의 깊은 정취와 따뜻한 인심이 함께 배어난다.

이어 공양 상에는 정성으로 익혀낸 김치가 더해진다. 깊은 맛을 머금은 배추김치와 보리를 넣어 시원하게 숙성한 얼갈이 물김치는 산사의 담백한 공양과 어우러져 은은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전한다. 떡은 절편과 쑥절편, 팥시루떡과 백설기로 마련된다. 부처님오신날 이른 새벽이면 마을 보살들이 정성껏 떡을 썰며 대중공양 준비를 거든다. 모든 공양은 뷔페식으로 정갈히 마련되며, 배식 또한 신도들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 이루어진다.

해가 저물 무렵, 연등에 불이 하나둘 밝혀지면 산사는 금빛 물결 속에서 더욱 환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빛난다. 봉축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회향한 뒤,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대나무 숲길을 함께 거닐며 정다운 담소를 나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연등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면 탑 주위에 둘러앉아 주지 스님께서 손수 내려주신 향기로운 차를 함께 나눈다. 봉축 행사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성을 보태준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따뜻한 차담 속에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 속 문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실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⑲ 21세기형 산문선 실천 도량

잘 늙은 사람의 품격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얼굴 주름이 많든 적든, 머리칼이 백발이든 까맣게 염색했든, 그것이 그 사람을 보증하지 못한다. 늙음의 품격은 살아온 삶의 질감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나무의 형상이 살아온 세월과 땅속의 사정을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된 내면'이다.

실상사 약사전은 잘 늙은 사람의 인격 같은 풍모를 보여준다. 정면 세 칸 중 왼쪽 오른쪽 칸의 문살은 담백한 격자살인데, 가운데 칸은 꽃살문이다. 넝쿨 모양의 빗교살이 이룬 6각형 사이에 정교한 꽃을 새겨 올리고 적색, 청색, 백색으로 단청했다. 색 바랜 단청은 햇빛과 비바람과 함께한 세월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실상사는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에 걸쳐 형성된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개산한 사찰이다. 실상사 약사전에 모신 철조여래좌상(보물)은 실상산문이 열릴 때 조성된 부처님으로, 실상사의 천 년 역사를 증언한다. 통일신라 후기에는 선문 사찰을 중심으로 철불이 만들어졌다. 교학보다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실천 수행과 일상을 중시하는 선문에서 금동불의 화려함과 결별한 시대정신을 철불로 표현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실상사는 선문의 실천성을 21세기의 시대적 과제를 화두로 이어간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작은학교, 실상사 농장이 그것이다. 21세기형 산문선의 실상이다.

손영자 작가



실상사 약사전.



부처님은 지금도 오신다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지난 5월 1일, 음력 3월 보름날. 부처님 고향 네팔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네팔의 웨삭(Vesak)은 보통 음력 4월이지만, 수십 년 만에 음력 3월 보름이 봉축일이 돼 한국에서 온 30여 명의 순례단과 함께 히말라야 자락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법회 전날 밤, 저녁 늦게까지 연등 작업을 마치고 잠시 기지개를 켰다. 그 순간 설산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온 대지를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이 안나푸르나 만년설 위에 내려앉자, 하얀빛 속에서 설산의 장엄한 자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풍경이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순례자들은 저마다 감탄과 환희를 쏟아냈다. "부처님이 정말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큰 복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부처님을 만나고, 나아가 나 자신 안에도 부처의 위대한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 복이다.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우주처럼 넓고 크며 어디에도 걸림 없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네팔 봉축법회를 마친 뒤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5월 24일, 음력 4월 초파일에는 소백산 양백정사와 서울 홍대선원, 그리고 뉴욕 조계사에서 각각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양백정사에서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도반인 백담 스님이, 홍대선원에서는 일본 출신 법

불탄일 맞아 부처님 만난 큰 복에 감사
진정한 봉축, 오늘을 축복하는 데 있어
자비·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여 스님과 선태극권 마스터 법증 스님이, 뉴욕에서는 재작년 홍대선원에서 출가한 정훈 스님과 내가 법회를 이끌었다. 처음으로 JustBe 승가 대중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봉축법회를 회향했고, 문득 깊은 감사가 일어났다.

특히 뉴욕 조계사는 1978년 숭산 스님께서 맨해튼에 세운 첫 한국 사찰의 법맥을 잇고 있는 도량이다. 2003년 묘지 스님이 현재의 센트럴파크 어퍼웨스트 지역으로 이전해 중창불사를 이뤘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리한 센트럴파크 곁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후학들이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것을 다시 세상과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진리의 이치를 다시 새기며, 도반들과 화합의 장을 열어 한바탕 야단법석을 펼친다. 하지만 그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는 특별한 의식이나 화려한 행사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봉축은 오늘을 축복하는 데 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 탐욕·분별을 내려놓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곧 새로운 탄생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곧 부처님오신날이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태어남의 기쁨으로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오신날을 가장 온전히 기념하는 마음일 것이다.

종정 스님의 하하하 법문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수선피우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야단법석이라고 하지만 본래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활짝 열린 절의 앞마당에서 진리의 말씀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법문을 듣는 법다운 자리를 가리킨다.

올해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여법한 야단법석이, 인터넷에서는 와글와글 댓글이 쏟아진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종정 스님의 법문이 한창인데 행사를 진행하던 누군가가 스님 법문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일은 벌어졌다. 급기야는 종정 스님의 법문을 마친다는 목탁 소리가 퍼졌고 진행자의 마무리 멘트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한창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살림을 바로 살아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이 뚝 잘린 것이다. 경내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모두들 당황했지만 더위에 지쳐갈 즈음이라 박수로 화답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지"라는 조금 당혹스런 종정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으나 이미 대중은 법요식을 파하고픈 마음을 박수로 쏟아낸 뒤였다.

그때 마이크를 타고 종정 스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하하하…." 불교계 가장 큰 어른의 권위가 내외 귀빈과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던 그

종정 스님 법문 도중 중단된 야단법석
독선·권위 대신 환한 웃음으로 마무리
내공 깊은 "하하하" 법문 잊지 못할 것

찰나 들려온 스님의 즐겁고 환한 웃음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유튜브에는 각본에 없는 초유의 이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의 실시간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대체로 불교의 진면목을 봤다는 기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독선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불교계 큰스님의 넉넉한 품에 존경을 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조계종 종정이 참 못난이입니다"라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해 강제로 내려가게 됐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시며 법문을 마무리하신 모습은, 외람되지만 평상시 단단히 마음공부하신 내공이 대번에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맛지마 니까야〉에 들어 있는 '짱끼의 경'에는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그 순서가 자세하다. 어떤 수행자가 훌륭하다는 소문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런데 소문만 믿고 스승으로 모시기에 앞서 그 수행자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부처님은 당부하셨다. 그 수행자가 과연 소문대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범부가 직접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수행자를 스승으로 모실 만한지 판단이 선다는 것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는 종정 스님의 그간의 수행력이 대한민국 사람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그리고 확인했다. 그 내공은 이렇게 뜻밖의 기상천외한 순간에 증명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스님의 자유롭고 유쾌하며 온화한 "하하하" 법문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삼배를 올립니다.

社 說

불자 정치인 부재,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는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불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자 정치인 부족'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인적 기반이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물론 특정 종교를 가진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정책과 자질, 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뿌리이자 국민 정신문화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에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인재 부족' 현상
청년 인재 발굴 · 지원 체계 구축 나서야

더욱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치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종교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불교계와의 소통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 안에 불교를 이해하는 인재가 부족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가. 과거에는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쌓은 불자 정치인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며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 불자 감소와 신행 기반 약화,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부재가 맞물리며 정치권에서 불교계의 존재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치에 입문한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숨기거나, 심지어 종교를 바꾸는 사례가 나타나는 현실도 되새겨볼 대목이다. 이를 개인의 신심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불교계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또 어렵게 성장한 인재들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는 선거 결과를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청년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최근 새로운 불교문화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양성으로 연결해야 한다. 법조·행정·교육·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불자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자 정치인을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불자 정치인의 역할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사회 통합, 생명 존중과 공공선 실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 이제라도 인재를 길러내고 지키는 일을 한국불교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선거 때마다 불자 정치인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그 인재를 키울 토양을 얼마나 정성껏 가꾸어 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하계수련교육

대한불교대승종은 아래와 같이 불기 2570년 하계수련교육을 봉행합니다.

■ 일시 : 입재 6월 26일 11시 / 회향 6월 27일 12시
■ 장소 : 문강유황온천호텔(충북 충주시 살미면 팔봉로 1061)
■ 문의 : 대승종 교육원(010-5165-0108)
총무원(055-862-6470)

교육은 대승종 전 종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행과 종단 교육을 통해 불국토 구현의 뜻을 다지는 자리로 교육 기간 중 금강계단을 설치해 득도계 및 사미(사미니)계 수계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6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재질 : 인조가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재질 : 인조가죽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